朝鮮日報
夕刊 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居留民保護次로 長江一帶軍隊를駐屯?

日本政府의對中要求條項으로 英로이텔通信이報道

【倫敦三十日發同盟】英國政府는 日中兩國間의 外交交涉에 異常한 關心을示하야 南京駐剳大使 크낫치불·겟센氏及 東京駐剳大使 크라이브氏等과 密接한 連絡을取하야 情勢推移를 打診하고잇는데 로이텔通信社는 三十日午後 外交界의 消息이라하고 日本政府는 南京政府에對하야 數個條로 成立된紛爭解決案을 提示하엿다고 報道, 日本政府의 要求內容으로서 特히다음要項을 揭載하엿다

一、日本人居留民을 保護하기爲하야長江各地點에 軍隊를駐屯할權利
一、中國學校의 反日敎育을 防止하기爲하야 中國學校敎科書를 編纂할權利
一、北中國五省의自治
一、日中兩國間의經濟合作(但 合作內容題目에 對하야는明示치 안흠)

大演習後政局緊迫乎

【東京電話同盟】陸軍으로부터現行行政機構改革에關한 具體案을 提出하엿스므로 政府는 그後陸軍의動向을 極히注目하고잇섯는데 寺內陸相以下 陸軍方面의右改革에對한意向은 어데까지던지 省의廢合 國策綜合統制機關의設置 無任所相設置等을 主張하야 全面的改革을 要望하야 겨우技術上의點으로 卽時實行可能한部門으로부터 着手하고 반듯이一時에全部實現을 要望하라는것은 아니라는點에 餘裕를보이고잇다 右軍部主張에對하야 政府首腦部見解를 綜合하면 單純히國策綜合統制機關及 無任所相設置만은 充分히 考慮의餘地가잇스나 旣存의 各省을 廢合하는點은 자못 絶對實行不可能한 問題이다 萬若强仍히 그를着手하면 內閣瓦解가必至라고하야 이와가티國內一部에서도 尨大한明年度豫算成立을 圖하는것을 先決問題라는前提로 行政機構改革問題는 後日에延期하라는 意向을가진者가 잇다 廣田首相의內心도 될수잇스면 省廢合의點은 回避하라는 模樣이다 그러나 陸軍方面의空氣는 原案主旨를 改變하는等은 如何한妥協에도不應하고 極히强硬한情勢임으로 假令政府가 國策機關의具體的强化와 無任所相設置는 讓步한다하더라도 省廢合問題를固執하고 政府軍部는 根本的으로 對立的情勢에이르기에 至치못할것이요 大演習後 政局의微妙한動向은 漸漸緊迫한度를加하기에이를것이라본다

『對中要求云云』은 對日重傷的宣傳

秘密에附한內容은알理가업다 로이텔報道에對한外務當局言明

【東京電話同盟】로이텔通信에依하면 日本政府는 別項과가티 對中要求를하엿다 傳한다는데此에關하야는 日本外務省當局은如左히言明하엿다

「로이텔」의傳하는바 要求條項에關하야는 全然事實과 相違하야 重傷的 宣傳으로밧게보이지안는다 日中國交調整에 關한 交涉內容에 對하야는日中間에 發表된 코뮤니케以外에는交涉中에는 秘密에 부치기로되어잇다 然而 그交涉의日本側要求로서 여러가지 想像的 그리고 宣傳的記事가 海外에 流布되고잇슴은 甚히 奇怪千萬이다 「로이텔」은 外交界의 消息이라고하나 右는 果然 倫敦의 如何한 方面에서 드럿는지모르나 日中以外의 諸國에서 此種여러가지無稽의 風說을 流布하는것은中間阻隔의 惡意로밧게 생각되지안는다 此에對하야는 適當한措置를取하게될는지도모른다

大元帥陛下 大本營에着御

【札幌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大演習行幸의 御日程을御志업시終了하시고 一日午後四時十三分 二十萬市民의熱誠的奉迎裡에 大本營으로 着御하시엇다 驛頭에는 閑院參謀總長宮殿下、朝香軍事參議官宮、東久邇軍事參議官宮各殿下、寺內陸相、小川商相 林法相、杉山敎育總監、統監部幕僚、宮城控訴院長等文武高官御出迎裡에 札幌驛着御、略式自動車鹵簿로 宇佐美侍從武官長 御陪乘 北大農學部의 大本營에 御向發 沿道에 堵列奉迎의 學生生徒 各團體一般市民에게 親히 御擧手를 賜하시며 午後四時二十分 大本營에 着御하옵시엇다

大演習想定要旨

【札幌電話同盟】來三日부터五日까지 三日間札幌附近에서 擧行되는 特別大演習의 想定要旨는 一日午後六時 統監部로부터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特別大演習想定要旨

一、奧羽地方을 根據地로하고北海道에侵入한 南軍을 旭川平地及 그以北을根據地로한 北軍은 近近南部 石狩平地에서 主力의 會戰을豫期되다
二、十月三日午前零時까지에 兩軍 指揮官의 知得한 狀況은 如左하다
一、約一師團의 北軍은 旭川平野에 集結하야 그諸兵聯合의 一部隊는 函館本線으로부터 輸送되어 昨二日末明頃부터 逐次岩見澤에 下車 各各그一部로서 이미由仁及 江別에侵入한 듯하나 其他狀況은 詳細치안코 信할만한 諜報에依하면 따로히 有力한 後續兵團은 十月四日頃 旭川에 到着할것으로 豫期되다
二、約一師團의 南軍은 室蘭에上陸 그諸兵聯合의 一部隊는 室蘭本線으로부터 輸送되고 昨二日末明頃부터 逐次苫小牧에下車 各各그一部로서 이미千歲及 追分에侵入한듯하나 其他의 狀況은詳細치안타 도미를만한 諜報에依하면 따로히 有力한 後續兵團은 十月四日頃 室蘭에上陸할것으로 豫期되다
三、兩軍偵察機는 昨一日以來때로 敵軍의上空을 飛行하고잇다
四、札幌以北 函館本線岩見澤室蘭間室蘭本線及 北海道鐵道以外의 鐵道는 兩軍이모다 此를作戰때문에 使用하지안는狀況이다
五、日本海는 北軍 太平洋은南軍의 勢力範圍에屬한다

制令
對敵行動開始는 十月三日午前五時로함

斷乎한決意下에 蔣氏와折衝開始

對中交涉은既定方針으로一貫 四相會議서意見一致

【上海一日發同盟】停頓되고잇는日中國交調整에 關하야 川越大使와 蔣介石張群外交部長과의 最後的折衝은 近日中에 開催될豫定이엿는데 右에關하야 在中軍部當局은 全面的支持를表明하고도 緊密한 連絡下에 萬一에 處할 一切의準備를 備하야 木石가티 冷靜히沈默을 직히고 時局의推移를靜觀하고잇다

【東京電話同盟】對中交涉에關한 首相外相海相陸相(梅津次官代理)의 四相會議는 一日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 開會 爲先 桑島東亞局長으로부터 最近中國情勢에對하야 詳細한 說明이 잇섯고 다시 過般外務陸海軍 三省會議의 結果를 報告하야 그確認을 求하엿다 다음蔣介石氏가 直接交涉에 出馬할때 日本側態度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얏는데 南京에서 川越大使 須磨總領事와 孔祥熙 吳鼎昌兩氏等사이에 會談한 結果는 日中交涉의 前途가 아직暗澹한것이 잇는模樣으로 傳하는데 日本으로서는 旣定方針과가티

一、排抗日의 根絶과取締
一、積極的親日政策의 實行
一、日中間諸懸案의 解決

의 三原則에 從하야 蔣介石氏를 相對로 直接交涉을 開始할것인데 이에關하야 四相意見이 全然一致된것이여서 近近有田外相은川越大使에 右重要訓令을發하기로決定同零時五十分散會하엿다

聯盟態度에對해 에國代表詰難演說

三十日總會席上에서

【쥬네브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前聯盟總會에서 에디오피아代表 타에자스氏는 突然發言을 求하야 各國代表의 感情을無視하고 再次伊에問題를 提出하고 敗殘의 祖國을爲하야 如左히悲痛한 熱辯을 吐하엿다

伊에問題는 이미解決되엿다는 것을 만히말하고잇스나 果然 今日聯盟의 措置로서 問題를 解決하엿다고 看做되는바 에디오피아軍은 不幸히도 撤退하엿스나 國境은 封鎖되고 武器輸入은 禁止되여 防禦手段을 奪取되엿다 我等이敗北한 것은 차라리 理에當然하다 에디오피아軍에 優勝한것은 彼等의精銳한 軍隊라하더라도 敵에 毒瓦斯 其他 攻擊的武器의 一方的使用을 許可하면 敗戰은 不免할運命일것이다 에디오피아皇帝는即時救援을 聯盟에要求키爲하야 西歐諸國사이에 奔走한데 모든것은 徒勞에 歸하엿다 我國土는 戰爭의 慘禍로化하엿다 紛爭의 經緯야말로 世界에는 一警訓이다 我等은 聯盟規約을 蹂躪하야 修正의必要는 업다고 思한다 그適用手段을 根本的으로 改革치안흐면 聯盟은 彼侵略國에 對하야 有効的効力을 加할수업다

最後로 타에자스代表는 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陛下는 自國을 援助하고 自國의 獨立을 維持하기 爲하야 相當한 苦心을 하고잇는 模樣이다 라고 述하엿는데 右는 皇帝의退位를 意味하는것은 아닌가하고 風說이 돌어 聯盟側에는 센세이숀을 이르키엿다

叛政府最高位에 프랑코將軍任命

叛革命國防委員會

【부르고스三十日發同盟】革命國防委員會는 三十日叛軍北軍總司令프랑코將軍을 叛軍總司令官에 任命함과同時에 西班牙政府首腦及 西班牙國總統에任命하엿다한다

西政府英政府에提出 三國干涉事實

【倫敦一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英國政府에對하야 獨逸·伊太利·葡萄牙三國이 叛軍을支持하야 內亂에 干涉하고잇는 事實을 暴露한 公文書를 提出 하엿는데 英國政府는 國際紛糾의 惹起할 것을 憂慮하고 右公文書의 發表를保留하고잇다 그러나問題가 不干涉案調整委員會에 上程되면 伊太利、獨逸、葡萄牙三國은 對抗的으로 佛國、蘇聯兩國의政府軍支援을 暴露하야 國際的醜態를 演出치안흘가 懸念되고잇다

叛亂軍의豪語

【부르고스一日發同盟】叛軍은마드리드陷落으로 餘勢를모라 카탈로니아 地方을 平定하야 全土에亘한 內亂의 終結은 三週間以內에 잇다고 豪語하고잇다 但 카탈로니아 地方은 全然外國의 關이잇스므로 그平定은急히아니할方針이라고 한다

首都危機에直面 最後的大激戰展開乎

首都居住婦女子에 避難便宜提供 西班牙政府聲明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叛軍의 襲來를 압서 西班牙政府는三十日午後 首都居住婦女子에對하야 발렌시아乃至地中海沿岸都市에避難하도록하고 市民의退去에際하야 一切便宜를 提供할旨를 聲明하엿다 政府軍은軍需工業中心인 톨레도市를叛軍에奪取當한때문에 全然軍需를 切斷當하야 武器彈藥의 供給에苦心하고잇다고傳한다

【마드리드一日發同盟】叛軍은이제 東西南北의 四方面으로 勢力을 糾合하야 마드리드包圍의 形勢에잇다 政府側도 마드리드市가 完全히 危機에 瀕한事實을 承認치안흘수업는 狀態에이르럿다 但 叛軍側이 마드리드西方三十四粁의 마드리드와 톨레드中間에잇는 이리에스카스를 占據하엿다는 報道를 否定하고 政府軍은 톨레드北方에잇는 叛軍을擊退 다시 바르카스 오리스데르레奪還도 企圖하고잇다고 言明하고잇다

【톨레도一日發同盟】政府軍은톨레도 마드리드中間에 位置한이리에스카스地方에 塹壕를 構築하야 首都防衛의 最後的決戰을 企圖하고잇다 一方政府軍의 爆擊機는 叛軍의 地上部隊에對하야猛烈한空爆을 敢行하엿다 叛軍의 地方部隊는 마드리드東南方四十二粁 아랑훼及 同西南方三十二粁의 나브아르카로네로에 向하야 進擊을 續行하고 잇다 또叛軍의 南方軍司令官 바레아將軍은 首都防衛는 全然潰滅하엿다고豪語하고잇다

獨伊葡와叛軍間에 政治的密約成立

獨伊兩國은領土的讓受權獲得 西政府機關紙의報道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西班牙內亂勃發以來 獨逸、伊太利、葡萄牙三國은 武器彈藥을秘密로供給하야 公然叛軍을支持하고잇는데 西班牙人民戰線의 本據、全國勞働總同盟의 機關紙는 三十日紙上으로 依然以上三國과 叛軍사이에 政治的密約이 存在하다고 報道하고 歐羅巴政界에 異常한衝動을 與하엿다 同紙의 報하는密約內容은 다음것이다

一、西班牙叛軍은 人民戰線을打倒하고 最後勝利를 收할際
▲獨逸政府는 大西洋의 要衝카나리아群島를 讓受할
▲北阿弗利加西岸葡萄牙領비사고스群島에서 獨逸政府는 海及空軍根據地建設의 權利를獲得할
▲伊太利政府는 발레아릭群島의一을讓受할
▲獨逸政府는 葡萄牙政府에對하야 經濟上援助의特權을附與할
一、葡萄牙國內에 反共産主義聯盟을結成할

同紙의報道에依하건 獨逸政府는 이미 빗사고스群島에 潛水艦根據地를建設하엿다傳한다

政府軍 아라곤市占領 多數捕虜兵器鹵獲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은三十日晩 휴스카州叛軍의要衝 몬테·아라곤市를 攻擊하야 드듸어 此를占據 四百十二名을捕虜하야 大砲二門機關銃彈藥多數를 鹵獲하엿다 다시政府軍別動隊는 휴스카州若干을 奪還하엿다한다

叛軍빌바오肉迫

【산·추안·드·류즈 一日發同盟】西班牙革命北軍은 目下빌바오攻略에 全力을集中하고잇는데 一日午後革命軍은 칸타브리아海岸온다로아港을占領 빌바오進擊에 모라 將軍主力은 레케이시오市에 向하야 進擊中이다 連日 空爆에빌바오 陷落도 目睫에 迫到하기 이르럿다고 解嚴되고 市民은 續續산탄데르港에向하야 避難中인데 同市는 人口過剩 食糧不足을訴하야 數日來 食糧制限令이 施行되게되엿다한다

地方官吏養成所 二日開所式

地方行政의 中堅官吏養成을爲하야 新設된總督府地方官吏養成所開所式은 二日午後부터 總督府圖書館에서擧行되고 各道知事推薦에依한 吏員五十餘名이 入所하고 式後朝鮮神宮에 參拜하얏다 所員은 繼續하야 同所에서 今後六個月間養成을맛고 各地方廳에 配屬될터이다

植民地不返還을 英保守黨大會決議

現內閣海軍政策支持

【마-게트=칠트州=一日發同盟】保守黨大會는 一日午後마-게트市에서 開會幹部出席下에 內治外交의 全分野에亘하야 討議를 遂하엿는데 席上 호아海相은 一九三六年度에 英國政府는 다음의 各艦艇을 起工할旨를 言明하엿다

巡洋艦七隻 驅逐艦十八隻 航空母艦二隻 潛水艦八隻 스-프六隻 水雷艇六隻 優秀艇二隻

大會는現內閣의 海軍政策支持를 決議한外 植民地不返還의原則을 決定하엿다

中國도選任 非常任理事國

【쥬네브一日發同盟】聯盟總會는 一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亞爾然丁代表라마스氏司會下에 開催 第一分科委員會를 通過한 非常任理事國을 現在九國으로부터 十一個國에 增員할 件을可決 中國도非常任理事國의 一로 選任되엿다 다음議事日程에 들어가 匈牙利代表 탄소스는 匈牙利는 第三(軍縮)分科委員會에 協力할수업는理由를說明하고 콜롬비아 볼리비아 도미니카 亞爾然丁各代表도 이어서 聯盟普遍化의必要를力說 會議는 午後零時四十分散會하엿다 明日再開할豫定이다

中央軍北上開始 그動向이極히注目

【北平一日發同盟】某所着電에依하면 中央軍第一師胡宗南 第六師周碞兩師를 爲始하야 合計六個師는 河南彰德州를通過하야 北上하야왓다 中國軍移動目的地는 目下不明이나 그動向은 자못注目되고잇다

佛新通貨法案成立

【巴里一日發同盟】佛國下院은一日午後三時半부터 開會 上院으로부터 回附된 通貨法再修正案에對하야 審議를遂한結果 新修正條項을 附加하야 表決에附한바 三百五十四票對二百十七票로 同法을 可決하엿다 다음上院은 右修正條項에對하야 審議를遂하엿는데 百六十票對百二十一票로 切下로말미아믄 利得에對한 稅率에 一部修正을 加하야 再次下院에 廻附하엿다 下院은 右修正條項을 審議한結果 結局原案을 固執하기로 決定 三百五十票對二百十九票로 다음原案을 可決하엿다

一、切下로 어든利得에 對하야는 五割의 特別稅를 賦課하야 八割로한 上院의 修正을 否決함
一、特別稅는 九月二十一日부터 二十六日까지의 現金取引에適用함

九月一日부터 取引에適用하라는 上院의修正案은 拒否함 下院은 一日午後十一時五分散會하엿는데 上院은 深更 下院의原案을 百五十五票對八十七票로서可決하고 通貨案은 겨우成立되엿다

西班牙國會 政府를信任

【마드리드一日發同盟】西班牙國會는 二個月만에 開會政府에對하야 信任을 認한後 바스크地方自治制를 許諾할件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엿다

八面鋒

◇ 空軍으로도 世界第一을 目標로 米國이 大擴張計畫을 樹立.

◇ 文化的 建設的 또는防禦的으로까지는 조흘는지 모르나 挑戰的 破壞的 殺伐的으로의 世界第一은 贊치안흠일.

◇ 行政機構改革에는 衆議를물리치고 斷行하겟다 하는것이 陸相의態度。

◇ 閣僚中에서는 平生文相이 贊成의「홈」을 끄럿스니 文部大臣으로가아니라 國務大臣으로라는말이겟지。

◇ 高普四年生이 先生의叱責을 듯고 縊首自殺을하엿다。

◇ 責任感이라는지 悔悟感으로 自決을 敢行함은 어느境遇에는 避치못할때도 업지안흘것이나 年少學生의 이러한行動은 戒愼할일.

人事·集會

▲南總督 鹽原秘書官 安井京畿道知事帶同 齋藤專賣局課長案內로 二日午前八時京城驛發 開城人蔘藥草栽培狀況視察한後午後五時歸京豫定
▲三橋警務局長 南朝鮮地方防空演習에出張中이든바 明三日午後三時二十分着歸任
▲金東元氏(本社顧問)一日入京中央호텔에投宿

辭令

(十月一日附)

羅津邑長 田口禎憙
任朝鮮總督府府尹(四等) 羅津府在勤
軍令部出仕兼海軍省出仕 海軍大佐 古田中博
被橫須賀鎭守府附吩咐 吳海軍航空隊副官 海軍少佐 堤蔡春
被待命吩咐 但命吳鎭在 佛國駐在 海軍機關少佐 奧本善行
被補海軍大學校敎官 兼艦政本部部員 海軍技術會議議員海軍航空本部技術部員 海軍造兵少佐 大門悟
被補吳海軍工廠砲熕部部員兼火工部部員海軍技手養成所敎官 佛國駐在海軍航空本部造兵監督官 海軍造兵少佐 橫山常市
命歸朝

보아「젤」에똥무르사설 각기,우체,경풍
本舖 京城藥局 振替京城八三六七 電話光3三七四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重難한訥言도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恩給 他에比較事最有利 特色乞照會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朝報案內
電話安價賣 光化門二二〇六番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三 京城電話仲買商 本四七七番
圖案家募集 圖案과看板에經驗잇는분 本町三ノ五一 愛國ネオン商會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Columbia
半島國語敎育界의福音!!
總督府制定·敎育會認定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國語讀本
標準朗讀레코ー드
各學年後期用第二輯 發賣!
콜럼비아레코ー드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一二五六番 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리질藥은 ネオヂリン
胃腸障害를念慮하시는분一回一個服用

臨時發賣
歡迎歌 마라손王 리라
속모르는말삼(全篇)
태평레코ー드

紳士用 最高級自轉車
名実共二日本一
オリエント ￥85 ビクター ￥85 カイセン ￥85 グレヤー ￥95
神戶市 帝國鐵工所
朝鮮一手販賣店 京城府東亞輪業株式會社

肖像畵家의惡技 紙幣를僞造行使

釜山東萊地方에서무릇十二回 畢竟、發覺되여警察에

초상화가(肖像畵家)가 지폐를 위조하야 부산(釜山)동래(東萊) 지방일대에서 행사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붓잡혓다

원산부본정(元山府本町)오정목 일백이십팔번지에 본적을 두고 부산부남부민정(南富民町)륙백십삼번지정일병(鄭一炳)의집에 기류하고잇든 초상화가 박상근(朴尙根)(三五)은 지난이십구일 오후아홉시반에 동래읍락민동(樂民洞) 잡화상 허훈(許勳)상점에 가서 물건을사고 위조지폐한장을 사용하엿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신고를 밧고 곳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을 수사한끄테 그날밤 열시이십분에 동래읍수안동(壽安洞)뒷골목에서 마침내 박상근을 붓잡앗는데 붓잡아서 취조한결과 그는 지난 팔월륙일이래로 최근까지 부산경찰서 관내에서 전후 열두차례로 일원지폐를 행사한사실이 판녕되엿다

붓잡든 즉시로 그의 신체를 수사한결과 그의버선속에 위조지폐일원짜리 석장을 숨겨가지고잇섯고 또 그의거류하는기택을 수사한 결과「잉크」와 그림그리는「펜」과위조지폐일원짜리 한장을 압수하엿다한다

鮮血로물드린街路

一日에만四件이連發 무시무시한自動車의往來

일일은 휴일인데다가 날세가 조아서 거리에는 사람의떼가평시보다 훨신만하서 무척복잡하엿다 따라서 피를흘리게한 교통사고도 네군데나 잇섯다

(일) 일일 오후다섯시 십오분에 동대문밧 창신정(昌信町)륙백구십칠번지압 큰길에서 창신정 륙백십구번지의팔호 구치준(具致俊)의 둘재딸 동운(東雲)이라는 아홉 살먹은 아이는 청량리(淸凉里)쪽으로부터 종로오정목으로 향해서 조선락시운전수 김치성(金致聲)(三七)이운전해가든 자동차에 바치여 왼쪽발에 삼주일치료바들 중상을입엇다 전차정류장에서 전차길을 북쪽으로 건느려다가 자동차에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이) 일일오후여섯시삼분에경기도청아페서시내혜화정(惠化町)십오번지의사십구호 최호선(崔好善)의집에잇는리수련(李壽蓮)(三)이라는 로파는 사쓰마락시 운전수 리원용(李源容)(三三)이가 효자정(孝子町)쪽으로 운전해가든 자동차에바치여 왼쪽귀에 일주일동안치료바들 상처를내엿다

(삼) 일일오전 열시반에시내견지정(堅志町)륙십번지압 큰길에서 시내견지정(堅志町)오십팔번지의이호길야등장(吉野藤藏)의 고용녀정남이(鄭南伊)(二三)는 경화(京華)락시 운전수 안창수(安昌守)(三七)가 안국정(安國町)방면으로부터 운전해가든자동차에바치여 뇌진탕(腦震盪)을이르켯다 길복판을 거러가다가 자동차의 경적(警笛)을 울리는것을 듯지못하고 외편길로 거러나가든중 자동차가 급정거하엿스나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사) 일일오후령시십분에 시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팔번지 정운성(鄭雲成)(一七)은 자전거를 타고 황금정 삼정목쪽으로다름질해가든중 반대방면에서 조일(朝日)락시 운전수박윤수(朴允秀)(三三)가 운전해오든 자동차에 바치여 왼쪽억개와 머리에 일개월동안치료바들 중상을 입엇다

阿片먹고죽은안해 男便이帮助?

警察에서引致取調

긔보=지난추석날밤에 시내루상정(樓上町)이백 이십번지 약종상(藥種商)성세영(成世永)(三九)의안해 서영자(徐英子)(三五)가 부부싸움끄테 독약을먹고 일일오후 령시이십분경에 드듸여 절명되고만 사건에대하야는 소관종로서 사법계에서 그내막을 자세히 조사한결과 뜻밧게도 다음과가튼 사실이 숨어잇는것이판명되엿다 즉 전긔성세영은 빈녀지도못한 살림에다가 그전부터 어떤녀의정을두고 오던바이로인하야 항상가정불화가 떠테가떠더로 그안해가 독약을먹던날밤에는심하게도 본처의 눈을 피하야최근 새로생긴 젊은 녀자와유달라도 밝은 추석날 달밤아래밀회를하야 서로 얼싸안고잇는 두남녀의 그림자를 전긔 서영자가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것이 중심이되여 그날밤 드듸여 맹렬한 부부싸움이 버러젓는바 남편의 주머니에 아편이 들어잇는것을 알고 언제든지입버릇가티 그아편을 내여먹고죽겟다하는것을 번연히 알고그아편을감추지안코 그대로지니고잇다가 결국 그아편을 끄내여먹고죽은것이라한다 경찰에서는남편이그아편을먹을줄알면서도이를 다른곳에 감추지안은것은 불작위적(不作爲的)자살방조(自殺幇助)가 된다는의미로 곳그남편을 류치식혀노코 방금엄중 취조중이다

汽動車正面衝突 乘客六名이重傷

慶北線牙川、玉山間서

【大邱支局電話】 일일오후 다섯시반 김천군어모면 일암동(金泉郡禦侮面日岩洞) 조선철도경북선아천(牙川) 옥산(玉山)역사이 김천기점(起點) 십키로되는지점에서 기동차 일백칠호가 김천역을 향하야가는길에 고장이생겻슴으로 급보를바든 김천역에서는 구원기동차를 보내엿든바 전기고장차는 이구원차를 기두리지안코 제대로수선을 하야김천역을 향하고 오다가 중도에서 정면충돌이되여 탓든승객여섯명이 중상을 당햇다고한다

五選手一行 神戶에凱旋

燦然히빗나는올림픽榮譽 京城到着은六七日頃

廉殷鉉 李性求 張利鎭 金容植 李奎煥選手

【神戶支局發電】 지난팔월일일부터 백림(伯林)에서열린 세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야 크게기염을토한 올림픽대표 본보대 일백칠명은 평소(平沼)단장인솔아래 금이일 오전네시반 우선(郵船)록도환(鹿島丸)으로 신호항에 도착하엿다 역두에는 이른새벽이건만 환영객으로 대혼잡을이루엇스며 일행중에는 조선출신의 리상백(李相佰)총무의원、렴은현(廉殷鉉)리성구(李性求)장리진(張利鎭)김용식(金容植)리규환(李奎煥)등 오선수가끼여 잇섯는데 모다 원긔왕성하엿다 일행은 신호항 상공회의소에서열린 올림픽선수 환영회에 림하엿다가 오전일곱시오십오분 삼궁역(三宮驛)발 올림픽특별렬차로 동경(東京)으로 향하엿다 전기오선수는 삼일동경에서 열릴 환영회에 참석하엿다가 귀향할 예정인데 경성도착은 륙칠일경이라한다

五選手에게 本社에서祝電

백림・올림픽에출전하야 분투한 롱구(籠球)대표 렴은현(廉殷鉉) 리성구(李性求)、장리진(張利鎭) 축구(蹴球)대표 김용식(金容植) 권투(拳鬪)대표 리규환(李奎煥) 등오선수는 예정과가티 이일오전네시 록도환(鹿島丸)으로 신호(神戶)에 도착하엿는데 본사에서는 일행의위업을 축하하는 전보를 일일밤록도환에 송선한 오선수에게 타전하야 환영의뜻을 표하엿다

地上部隊와協力 敵機를猛射擊退

南朝鮮防空演習實況

【釜山支局電話】 일일오전다섯시오십팔분 적긔습래의 경보가밝어가는 첫새벽의 고요한 천지에 요란스럽게울리자 동쪽과서쪽의 두곳한울에는 비행긔가각각한대씩 나타나자 전투긔세대는 지상부대(地上部隊)와 서로 호응하야 맹렬한 추격을시작하엿다 적긔는 구름에 몸을감추어 달아낫는데 동여섯시사십구분경에 해상을따라서 약오십메돌의 저공비행을하야맹습하랴하는것을전투긔세대가 분연추격포위하야맹렬한공중전이전개 되엿다그리하야 적긔는 마침내부산항내에 추락하엿다동일오후 여섯시 사십분경에 또적긔가습래한다는 경보를밧고 등화관제를 하고 대긔중 동일오후시반 서남쪽하늘에 과연 적긔가 나타낫슴으로 지상부대는 탐조등으로적긔를 비최고 맹렬한 사격을가하엿슴으로 한개의 폭발탄도 투하지못하고 도망하야버렷다

"當代沈淸"을救하자!

營業許可를電報로沮止 貞操壞滅危機를一步압두고 故鄕有志들이奮起

【平壤】 긔보=전산불수의아버지를 구하고저 자긔의몸을 청루에 팔게되여 평양진정유곽(賑町遊廓) 매월루(梅月樓)에 나타난 당대의 심청(沈淸)이 경북의성군비안면동부동(義城郡比安面東部洞)리석배(李石培)의 이녀 리월순(李月順)은 방금 매월루에서 영업허가가 나아오기를 가다리면서 장차닥처올 암흑한운명을 몸서리치고 잇는데 본보에 이긔사가 발표되자 각지에서는 구제해주도록 하여야겟다는 여론이 놉하잇서서 본사평양지국에는 여러통의 투서와긔사의 서신이 도착되엿고 더욱이 비안유지일동(比安有志一同)의 명의로 방금 구제책을 강구중이니 영업허가를 저지해달라는 전보까지 도착되엿다

그러나 수일이내로 허가가 되다면 포주측으로서는 영업을 요구하게되여 가련한일생으로 지내지안흘수업는현상에 비치어 구제운동을 급속히 진행하여 효녀 리월순으로 갱생의빗을 보도록 해야겟다고 초조히기대리고잇다

窃盜犯行新記錄

學校專門百七十八件

【平壤】 절도범행일백칠십팔건을 자백한 절도범최계의 신긔록을 작성한자를 평양서에서 체포햇다 평양부내 남정(南町)김정보(金貞保)(三三)는 팔월삼십일오전두시경 부내수옥리(水玉里)녀성경학원긔숙사(女聖經學院寄宿舍)에 침입하여 네미두말다되를 절취한것을 필두로 부내각학교만 전문으로 전후일백칠십팔건 총액이천여원을 절취하여 살을지고 도라단이면서 자긔집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는테실비로 제공한다하며 싸게팔어버렷다

花鬪賭博黨打盡

이일 오전한시경 시내황금정(黃金町)일백삼오번지에서 화투도박을 하고잇든 일본내지인의 신사도박단 남녀여섯사람이 본정서에 피검되엿다 그들은 황금정이정목에서 크게장사하는죽본모(竹本某)남대문통(南大門通)에서 변호사노릇을하는 중촌모(中村某)(假名)외 네사람으로그중에는 기생한사람도 끼여잇다

피검된 일행이 모다 유력한사람이니만큼 사건의내용은 상당히 큰모양이나 아직자세한것을 알수가업다

엉터리女醫師

治療費만詐取

일일아츰 시내당주정(唐珠町)팔번지 김영수(金榮水)(三二)(女)는 의사법위반(醫師法違反)으로 종로서에 인치되엿다 그는작년부터 시내각처를 도라다니면서 자긔는 어떤난병(難病)이든지고치는 재조가잇다고 맹랑한소리를퍼처노코 그해십일월조순 시내내수정(內需町)일백팔십팔번지 정태진(鄭泰鎭)의 어머니 남인녀(南仁女)(六一)를 무료로치료한다고하야 며칠 드나든후 수차에나누어서 총액이십오원을 바다먹은사실이 잇다고한다 이외에도 현재그가 손대이고잇는환자가다섯명이나 잇다고하야 여죄를 계속 취조중이다

亂暴한士兵、共軍 衣類食糧等掠奪

嚴寒압두고過冬準備에奔忙 移住同胞被害多大

【咸興】 함남도대안장백현(長白縣)종에서도 이주동포들이 장만히 살고잇는 인두강성(仁頭岡城)과 신창동(新昌洞)에는 근한달동안 련열무송현(撫松縣)으로부터 옴겨온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과각종토병대들의 습격(襲擊)으로 이미수확하엿든 유일한식량(食物)인마령서(馬鈴薯)와 가축등 가장물(家畜物)의 전부를 빼앗기고 주림에 빠지고잇다

더욱이 수백명이 매일가티몰아다님으로 아직수확하지못하고잇는 각농작물을은짓밟히여거의 전멸상태에 빠지고말엇슴으로지난며해동안농작으로 신음하든그들은 또다시 이번겨울에는 전해보담도 몃배더되는 기아에서 헤매이게되엿다고 하는데 어떠튼 부근수천명의동포들의 피해는 참상은 상상이외의 혹심한정도라고한다

競馬에미친일코 生命도바친靑年

虛慾에달떠서죽엄으로淸算

일일오후열시경되여 시내동사헌정(東四軒町)이십륙번지 백남식(白南植)(二□)이가 다량의수면약(약명은판명되지안헛다)을먹고 신음하는것을 그의누이동생이발견하고 곳대학병원에 입원식히여 응급치료를 다하엿스나 이일아침 아홉시경에 드듸어절명하고말엇다 그는 원래술 담배도안먹는 근실한청년으로 현재는 전긔주소에서양철장사를 하여가면서 그날그날에 평범한생활을 계속하여오든중 정업자긔기거래하고잇는 룡산(龍山) 근강조(近江組)주인에게서 도라지삼원을빌내여서 장사를좀크게 하려고 하엿든차에 하로는 경마구경을가서 불행이도그돈전부를 소비하여 버린사실이잇다 그는이것을 일상비관하며 비용가불도리기 업는것을 거정허다못하야 드듸여 자긔손으로 자긔의최후를 마지한모양이라한다 그리고 일가의생활을 걸머지고잇는 아들을 어더버린 유족들은 오직눈물에 잠겨잇슬뿐이다

獨自의立場에서 새角度로運動!

靈泉土地會社側態度無誠意 峴底町住民等도强硬

루보=지난십구일에 현저정(峴底町)관동정(舘洞町)행촌정(杏村町)의 삼정대표와 령천토지회사(靈泉土地會社)간에 열린지가협정(地價協定)의 제이차 절충이 회사측의 원안고집으로 드듸어 결렬되고말자 정민대표들은 회사측에 재고를종용(慫慂)하고 일단되거하엿든바 일일오후한시에 정민측으로 보아서는 최후안이라고 부를만한 동고를 회사측에 발송하엿다

그안의 골자는 제이차절충시에 주민이 주장한지가(地價)를 류군성(柳君星)씨가 관리할때와가티 할것(차지료(借地料)는종전대로 할것)등 이라는데 수개월동안을 끌고가든이문제 해결의 열쇠는오직회사측의 성의여하에잇다고하며 회답여하인 오는오일에 이번교섭조차결렬되고말면 주민측도독자적(獨自的)립장에서 새로운각도로 운동을진행식힐모양이라고한다

不義의씨인듯 觀水橋下兒屍

이일오전 여덟시경에 시내관수정(觀水町)관수교(觀水橋)밋헤 태아시(胎兒屍)하나가 발견되여 방금 소관종로서에서는 서원수명이 현장에까지가서 엄밀조사중인데 임신된지 몃개월인지도는 그성별(性別)조차 아직알수업는바 경찰에서는 이것이 불의의타태(墮胎)인지 또는 루산(流産)인지 그내막과 유기범인을 맹렬수사중이다

平壤神社에參拜

崇專、崇中、崇義三校 神社不參拜問題解消

작년겨울에 평양(平壤)에잇는긔독교계통학교의 신사불참배문제로 한동안 큰문제를 일으키어 학교당국과 학무국간에 여러가지 절충이잇섯든것은 이미보도한바이다 그런데 이일에 평양신사의 례제(例祭)를 집행하엿는데 문제중이든 숭실(崇實)전문과 숭실중학 숭의(崇義)녀학교는 교원학생 전부가 참배를 하엿다

그리하야 오래동안 말성거리가 되어잇든 신사참배문제는완전히 해소된셈이라한다

의복감은 송고단
질기고 빗갈좋고 물안빠지고 값이쌉니다

朝鮮少年軍 十四週記念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창립 십사주년기렴식과밋 운동회는 오는사일 오전열시부터 동대문밧 식은(殖銀)운동장에서 거행할터이라는바 일반의 참관을 환영한다고한다

自轉車에重傷

일일오후한시경 황금정(黃金町)이정목 일백구십오번지압 길에서행촌정(杏村町)구십 이번지의이호 박윤수(朴允秀)가운전하야 황금정(黃金町) 삼정목에서 이정목으로가는 경제구천사십륙호 자동차와 청엽정(靑葉町)이번지 정운성(鄭雲成)(一七)의 자전거와 충돌되여서 정운성은두부와 왼편억개에 전치 일개월의 중상을 바덧다

현재 식촌병원(植村病院)에입원치료중이다

원인은 서로 피하려다가그만 와그가티되엿다한다

天氣豫報

槪況 七二〇「미리」의猛烈한颱風은 沖繩東海上約五〇「키로」에잇서서 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弱한低氣壓은 北滿과樺太에잇다 高氣壓은 中國中部東北地方에 七六〇「미리」를 보이고잇다 北滿은 雨、南滿과北朝鮮은 曇、中部以南은 晴天이다 琉球諸島는 暴風雨、關西地方은 흐리고 곳곳에비가오다 東北地方은 날세가조타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날이들고 來日은 조금흐리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六
同 最低 一一度八
今朝 同 一一度四
今日正午 二二度

運動競技

體育데이庭球 崔李組優勝 中等部決勝은今日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 體育데이 軟式庭球選手權大會 一般部及 中等學校部決勝은 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 AB兩「코ー트」에서 열린바 一般部에는殖銀의 崔永生、李鍾鎬組가 優勝하엿스며 中等部準決勝戰은 二日午後四時半부터 同運動場에서 續擧行하기로 되엿다

◇一般部【第三回戰】
○殖銀(本庄 諸誠鎬) 4…2 實專(全泳俊 梁□□)×
○實專(李鳳基 梁在景) 4…3 總府(金雲成 盧昌斗)×
○殖銀(藤原 朴龍善) 4…0 信遞(松田 李□□)×
○信遞(宮崎 孫□□) 4…1 遞所(河東植 赤松)×
○實專(白南儁 朴寅世) 4…0 專法(李容佳 □□□)×
○信遞(朴鍾燁 大友) 4…3 殖銀(□□□ 神田)×
○拓東(朴正烈 趙斗欽) 4…0 實專(金世羽 金潤豊)×
○殖銀(崔永生 李鍾鎬) 4…1 信遞(鈴木 元大奎)×

【第四回戰】
○實專(李鳳基 梁在景) 4…3 殖銀(本庄 諸誠鎬)×
○殖銀(藤原 朴龍善) 4…3 信遞(宮崎 孫□□)×
○實專(白南儁 朴寅世) 4…3 信遞(朴鍾燁 大友)×
○殖銀(崔永生 李鍾鎬) 4…0 拓東(朴正烈 趙斗欽)×

【準決勝】
○殖銀(藤原 朴龍善) 4…2 實專(李鳳基 梁在景)×
○殖銀(崔永生 李鍾鎬) 4…3 實專(白南儁 朴寅世)×

【決勝戰】
○殖銀(崔永生 李鍾鎬)…棄…殖銀(藤原 朴龍善)×

◇中等部(第三回戰)
○善隣(宋在百 金炳斗) 4…0 龍中(吉田 篠原)×
○一高(李炳憲 李春宰) 4…0 東星(金萬均 朴完熙)×
○培材(南昊植 金昇洙) 4…3 二高(金慶鎬 金在鎬)×
○養正(任完淳 尹禹鉉) 4…2 曹成(宋相根 徐昌龍)×
○龍中(沼田 安井) 4…2 東星(金龍泰 盧毅勳)×
○二高(閔丙玉 李鉉基) 4…1 一高(白成基 徐廷尚)×
○中東(安芳善 申東一) 4…3 曹成(宋在鳳 李昌受)×
○靑學(李泰東 高斗圭) 4…2 培材(閔南基 金麗九)×

【第四回戰】
○善隣(宋在百 金炳斗) 4…3 一高(李炳憲 李春宰)×

神競리비第一日 養正培材各勝

第十二回朝鮮神宮體育大會리비部一般部第一次戰及 準決勝과中等部第一次戰은 一日午後零時부터龍山球場에서 열린바 當日의戰績은 다음과가트며 培材는宿敵龍中을 養正은 善隣을各各擊退하엿다

【一般部】

【同準決勝】

朝鮮鐵道 65 (42 23 …… 3 6) 9 京商俱

京城리비 41 (20 21 …… 0 0) 0 京城工場

【中等部第一回戰】

養正 43 (23 20 …… 0 0) 0 善隣

培材 14 (3 11 …… 3 0) 3 龍中

京師 2 京商 1

京城商業對京城師範野球은 一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佐田(山)孫禧俊 龜井 安藤(□)四氏審判下에 京商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二A對一로 京師軍이 勝捷하얏다

京商 0 0 0 0 0 0 0 1 0 ─1
京師 0 0 0 0 0 0 0 1 1 ─2A

◇投捕=(京商)笠原─龜山(京師)片山─松本

實業庭球日程變更

京城實業庭球리ー그戰은 지난二十九日로서 終了될豫定이엿스나 其日程中에 日沒또는 雨天으로因하야中止한바잇섯는데 其未備된「께임」日程을 다음과가티 變更하엿다

▲二日午後四時半부터 遞信對府廳(朝銀코ー트) 專賣對總督府(殖銀코ー트)

▲三日午後二時부터 遞信對總督府 專賣對商銀 遞信對商銀、朝銀對商銀(以上朝銀코ー트) 殖銀對鐵道(以上殖銀코ー트)

그리고 同日午後四時半부터 朝銀코ー트에서 閉會式을擧行할터이다

軟式野球遞信優勝

第十二回朝鮮神宮體育大會 軟式野球決勝…遞信局對總督府戰은 一日午前十一時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遞信先攻으로 開始된바結局六對一로 遞信軍이 優勝하엿다

總府 (0 0 0 0 0 0 1 0 0 ─1)
遞信 (1 1 2 0 0 0 2 0 0 ─6)

高血壓 ─腦溢血・中風

自己診察 ─생각이나면곳注意!

1 (식 욕) 주연조먼는분─혹은지방을만히먹는분
2 (긔왕증) 신장염을며과매독병에걸린분
3 (체 질) 어렷슬때부터건강하고목이굵고머리가큰분
4 (유 전) 낭친이던가조부모가뢰일혈로죽은분
5 (직 업) 운동이적고두뇌를사용하는분

우오항중하나혹은 둘이상에해당한분이사십세전후부터 하로외가듯중상을자각할때는뢰일혈이동맥경화 고혈압에걸려잇스므로 심장마비뢰일혈중풍에 걸리진조로서실로위험하다 이런병의근본은모다

협액의혼탁

의원인으로 이러나므로거마리와 부앙의고식된사혈법을하거나 혹은一시적인 혈압강하제를써서는 근치하기가어렵고 근본원인이탁혈을정화하야 순환을조케하면반드시낫는다

이상의결론을 어덧스므로 승취분의수진불국리학박사가 영년연구한결과 비상히 강한 식물호르몬을 채취하야 이것을 응용하야 사용간단하고 내복약을완성하야 일반환자에게 지극안기하게제공하고잇다

이것이목하 대평판인

리기싱 (イマヅ)

이다 지금까지만흔비용을드려도 난치로서비관하고잇든분도 본제에의하야 간단히치료할수가잇서 서로감사를밧고잇다 리기싱을복용하면체내의독소가 대소변으로 배설되며오탁한혈액이정화되여순환이잘된다 따라서우긔의증상도 감나고 무서운심장마비와 뢰일혈중풍도완전하게예방할수가잇다

중풍은쾌방

일차중풍에걸리면 불치라고단념하는분도만치만 리기싱의복용과 적당한양생에의하야 병의원인인 탁혈을정화하면 반신불수 허빽빽한것도낫고 중풍도매입매일조화진다

리기싱은 전국약점에잇다 一圓半 三圓半 六圓半 大阪市大仁本町鱸取粉本舖 今津化學研究所로 조선일보명기입하면 설명서송정

위협이해소! 보험에가입

(전략)소생이작년여름 보험의의 진찰에의하야 혈압二二〇미리라고하며 뢰일혈의위험이잇다고해서 보험가입을거절을당하엿든바 곳귀시의리기싱을복용한바 변통도조화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불쾌한이명과수족마비심장의압박감도부지부식간에 소산하고성욕감퇴도회복하고혈압도 一三五미리까지 내려서보험의의진찰을바더뢰일혈의 위협이완전히해소되엿다고해서 보험에가입이허락되여가내一同은경하하는바입니다그후도 주의때문에 계속하야리기싱을 복용하고잇습니다 大阪市・小寺三郞

大根と菊

さるは虫・油虫 心くひ虫・毒虫 ─의驅除法과 農事試驗場의이야기

イマヅ살충제는 효력이강하고 진드물・박쥐・적충・진드이・모충・청충 을몰론마래입버레가튼완고한버레에도잘듯는다특허회분과야채등저항력이약한식물에도 절대로약해가 업스므로안심하고 사용할수가 잇다 ……운운』 이것은 흥업농장의이야기이지만 농사시험장에한하지안코 대판의 대표적식물원레를들면 시립의 천왕사공원과 성부공원 혹은파산공원이야메못 다가라쯔가등의 식물원에도 イマヅ살충제를 사용하야 비상한 호성적을 올리고잇다。イマヅ살충제는 취분의 수진불리학박사가 궁중한 장뢰우에서 발명 세계각국의 전매특허를 어든 살충제로서살충력이비상히강할뿐만아니라 버레가실허하는냄새를 떠여냉기므로버레가전연붓지안는다 금파리와 외버레가튼이동성해충에는특히효과가만타 또본제는 인체에감촉주사하는것과가티자극을주지안케주어 발육을성하게하고수확을증가시키므로일반애용자가기뻐한다

イマヅ살충제는목하현상발매중 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硏究所로신입하면 농작물해충구제에진정할야안라는책을희망자에게 무료진정함

神經痛・喘息

"惡血毒素"를除去하면 아픔을제거하고發作을豫防한다

신경통의원인은 림병매독 주연초의독 연독 신장염 감기 변비등의 독소가 혈액중에서기여 순환이나빠지고 이것이관절과림파선에결체하므로 그것이원인이 되여 저지거나습하거나해서 과로로통기가되여 아퍼지게되는것이다。

서식도인후에 분포한신경의장해 (주인후의신경통)때문에 발작이 이러나 식식하는서식과 신경통의원인은 모도가갓다。

아픈것과발작을멋게하는것만은 마비제로 충분하지만 효과가곡히일시적으로 습관성이되거나심장과위장에 나쁜부작용을끼치므로약을쓸수가업다、

어떠케하여서든지 병의원인이 되는악혈독소를 제거치안는한근치할수가업다、승취분의수진불국리학박사완성의 イマヅミン은이목적에 꼭맛는치료제로서먼저과뇨변통을조케하고 혈액중의독소를 대소변으로 배설하야탁혈을 정화하고 순환을조케한다

아픔과 담기침이 멋고이후의식식하는 소리도업시하며 발작을 예방하면서 전쾌해간다。

특히본제의 가장자랑을 살는점은 위장을건전하게 하는것과부작용이 절대로업스므로 소아와 로인도 안심하고 복용할수잇다

각약점에잇다 二圓四〇 六圓五〇 十圓 大阪市大仁 今津化學研究所로 申込하라 설명서와양생법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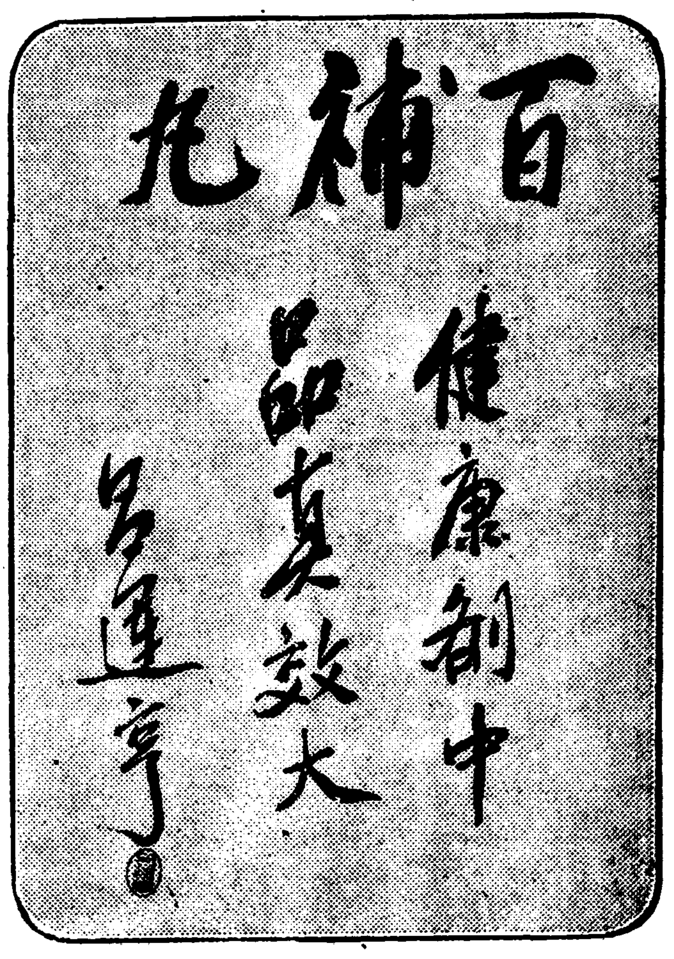
喘息快方이여더한기쁨업다

(전략)소생이수년래의고한서식으로지금까지일개월에二회는격렬한발작이이러나서인후가식식하고호흡이곤해서무척로무웟(중략)귀소의양생법에의하야イマヅミン을복용한바석달으로는발작이이러나지안코전혀이게일녀동과한냉함에는기침을…도나지안코가아프지안코전혀유쾌해저서이에따라한기쁨이업서서감사하는바입니다 (○○市・山田光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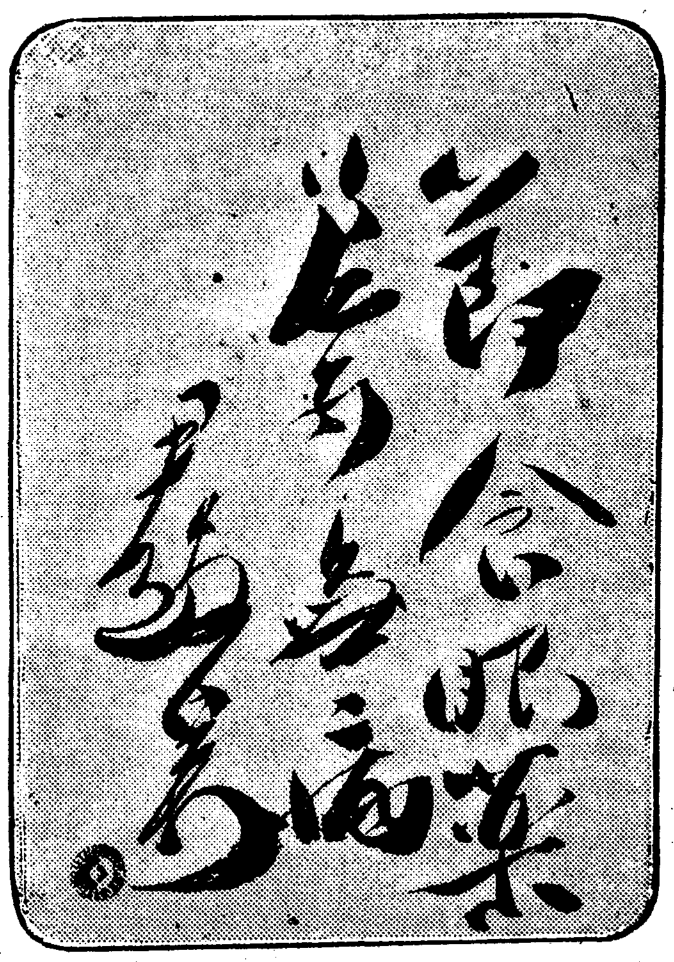
貴族兩班各界名士의最大賞讚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年補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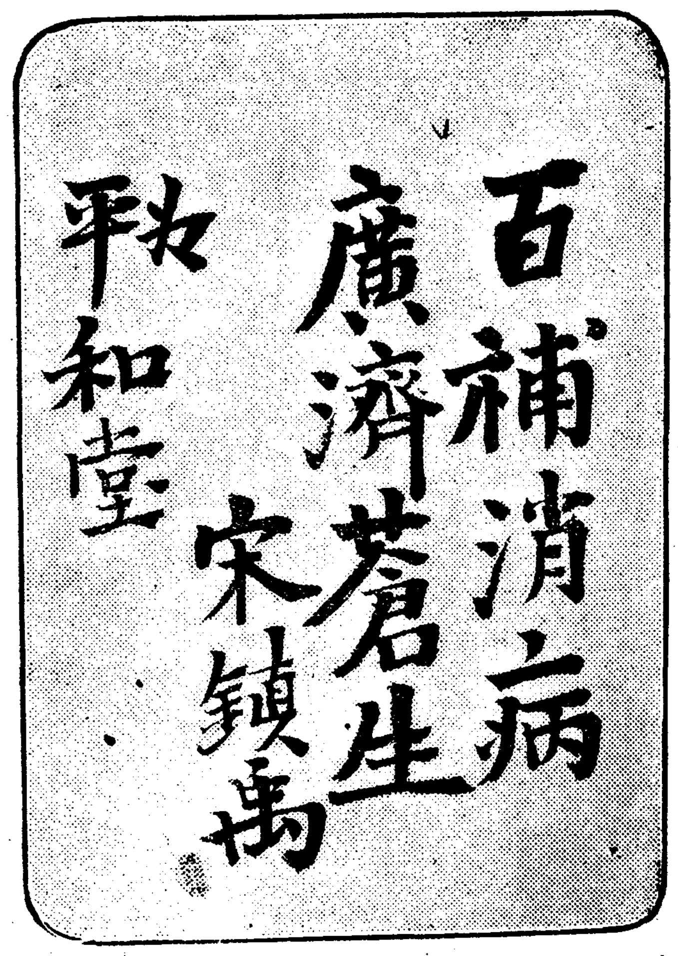
中央日報社長 呂運亨先生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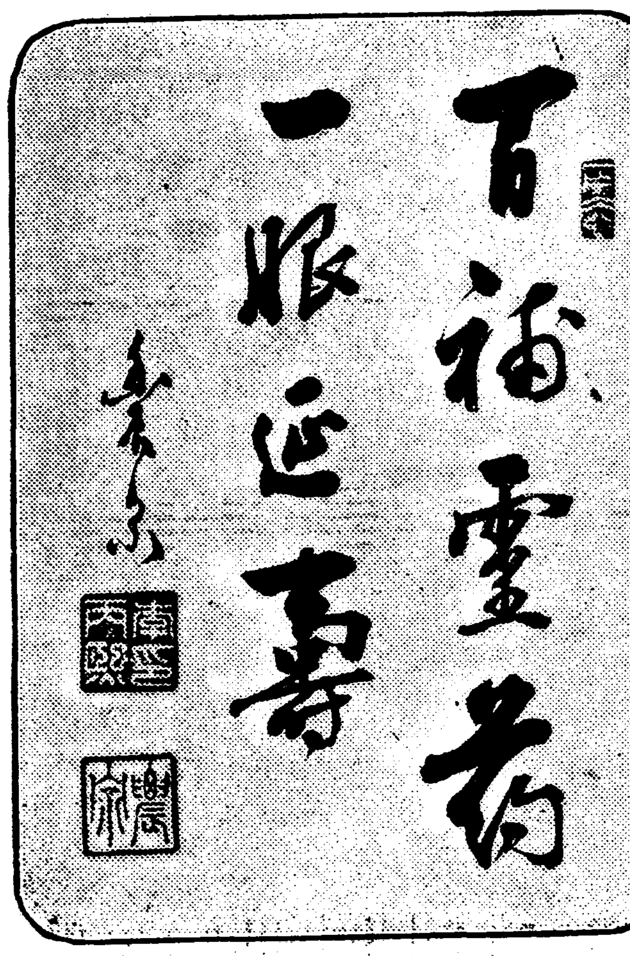
前外務協判 體育會長 尹致昊博士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東亞日報社長 宋鎭禹先生의推奬文



李王職 李丙熙先生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身體健康은 萬事亨通의根源

萬金不換의此事實

●朝鮮의貴族、兩班、大臣、各界朝野名士諸氏의 最大賞讚 愛用을밧는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입니다

●今回 獨逸伯林에서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까지愛用된補藥은事實百補丸뿐이며百補丸은補血、强壯劑로果然世界第一임니다

●世上에는別別虛無誇大한廣告도다만흐나事實百補丸과가치効力조흔藥은다시업습니다

●百補丸의偉大한効力은只今區區한說明을할必要가업사오니廣告보다事實을밋고쓰시요

●事實로조흔補藥은이러케

●貴族兩班階級에서賞讚愛用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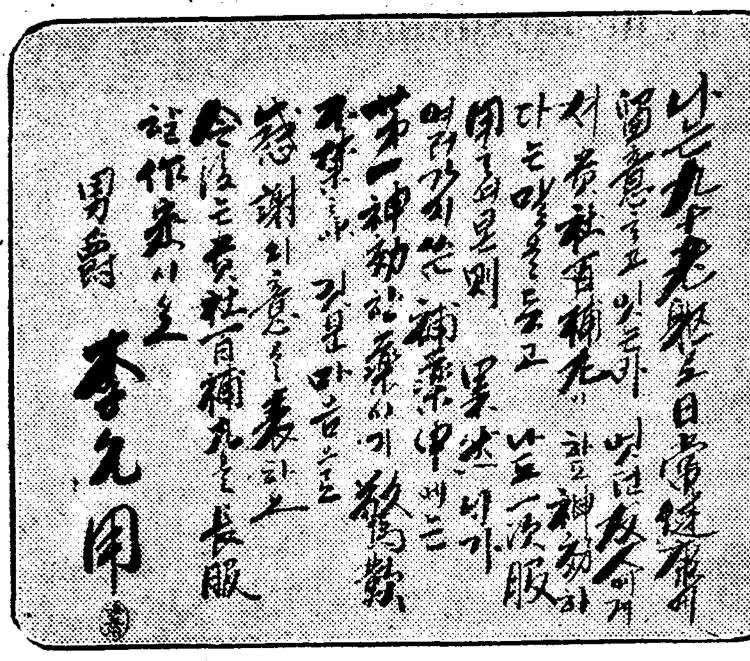
百補丸

世上은 조흔 世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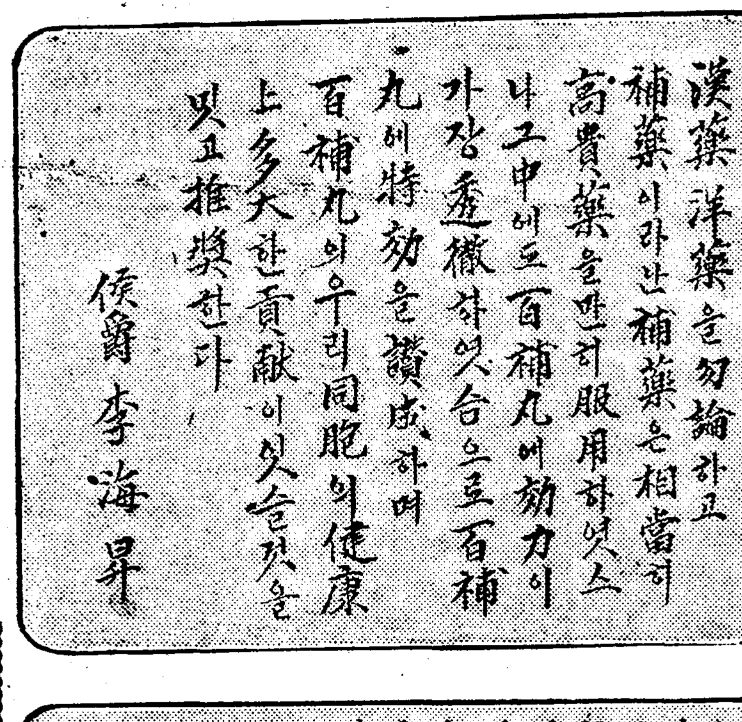
一、昔日에난 特別한貴族 兩班만이 쓰던 秘方補藥인데

一、現代에난 누구던지 自由로 쓸수잇게 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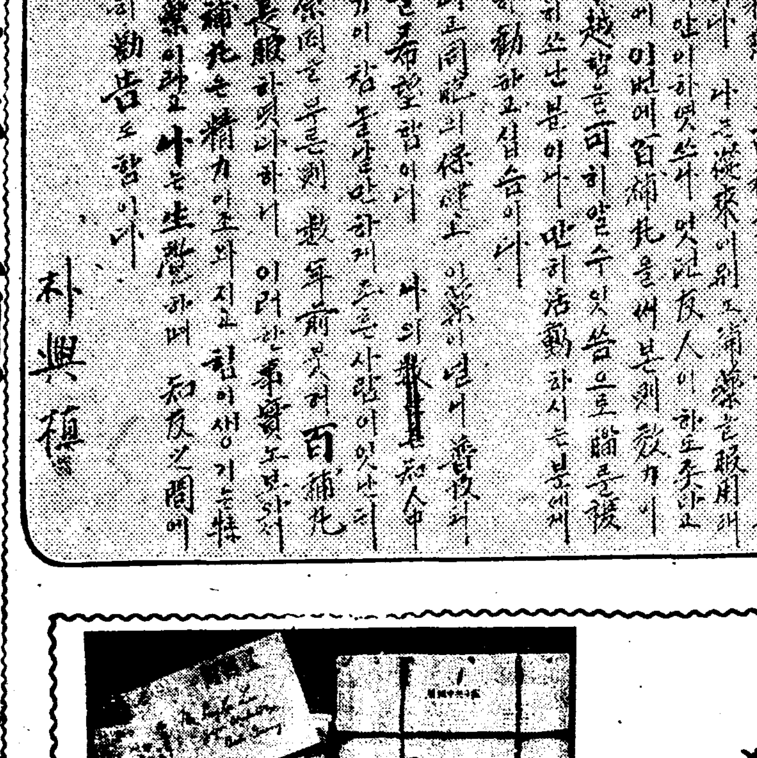
前宮內大臣 男爵 李允用閣下의推奬文



侯爵 李海昇閣下의推奬文



和信社長 朴興植先生의推奬文



●青春을延長하고저하는사람은쓰시요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委託販賣店募集

地方有力醫師醫生 有力藥店에限함

世界第一紀念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無料進呈

몸만 튼튼하면 무엇이나 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 爲先 世界的强壯劑 百補丸을쓰시요

●孫基禎은 世界第一! 獨逸伯林서開催한 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 一等!

●이榮光、이名譽를 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紀念體育館 이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 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 振動하는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健康을爲하야 또는

●이世界的 歷史的名譽를 慶祝하며 紀念하기爲하야 損益을 不顧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에게 限하야 百補丸十圓分一劑사시는분께 百補丸（拾圓包半劑入）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곳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中止합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라고明記하시요

陽氣不足、氣血不足은長壽못할前兆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한사람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衰弱한데特効함

●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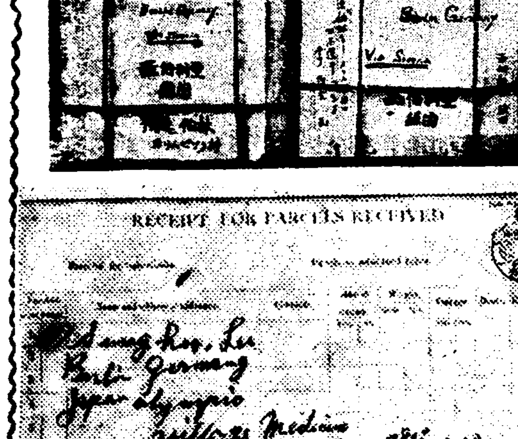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더욱速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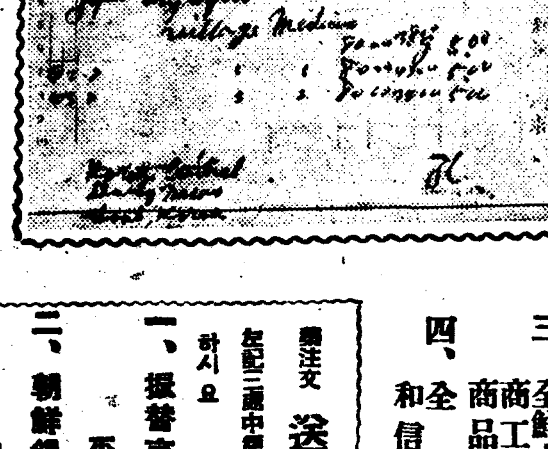
●눈이발가지고 皮부가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히 陰陽雙補되는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임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婦人과 아해에게도조씀니다●





朝鮮中央日報社運動部를通하야 獨逸伯林選手에게發送된

百補丸十一箱과

呂運亨社長의激勵편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五番 電話光六三二番

藥價 一劑特價拾圓 重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一劑進呈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鮮十三道廳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送金은 注文 左記二處中便宜한곳으로하시요
一、振替京城五番 平和堂
二、朝鮮銀行本店 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 內平和堂

장숙을 물고서 옛날 이야기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이후 구라파 사람들이 물밀드시 드러와서 내땅처럼 차지하야 오늘에는 훌륭한 주인이 되엇지만 본시 이땅의 주인은「아메리카、인디안」사람들입니다 구라파사람들이 맨처음에는 「아메리카」를 인도(印度)인줄만알아서 토인들인 디안족인도 사람이라고 햇습니다 그러나 얼마후에 정말 「인도」가 딴데잇는줄을 알고나서 「아메리카、인디안」이라고 부르게된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인디안」의부인네는 어떠가 사진은 미국그레이샤ー눅립공원안에살고잇는 인디안의어머니와 애기、공원의 산그늘에서 평화로운 꿈만뒤정을하는 그녀자들은 허구한날 담배먹는일이 큰일처럼 되어잇습니다 귀엽둥이애기는 어머니의 겨틀떠나지고안 자미잇는 얘기를 해달라고조름니다

어머니여! 드르시요 젓먹이들의 항의

다섯가지의 조약을 체결합시다 말못할 답답한 사정

말 못 하는 어린 애기들이라고 아모렇게나 대접하지 마십시요。 말은 못 할망정 저자 편코 편치안한 것이야 모를리 잇습니까? 어른의 생각대로 떡케 하야 준다고 도리어 거북하고 귀찬케 맨들지 마십시요。 자긔네가 어려서 어떼든 것을 까마케 이저 버리엇는지는 모르지오만은 애기네는 애기네대로 여러가지 다른점이 잇습니다。 만천하의 어머니시여、할머니시여 누님이시여 심지어 업저지들이여! 젓먹이 애기네들로부터 이러한 항의서(抗議書)가 들어 왓습니다。어떠케 이런 항의서를 어더 내엇느냐고까지 물으서서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만ー。

작난감으로 아지마시오

우리는 옷둑이도 아니요 인형도 아닙니다。뺑을 마치다 살을 갓지른다 자빠드리고 이리키고 벙벙작난을 하니 어듸 사람이 살수잇습니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잠자는것이 제일 조흔뿐아니라 그러케 작난감처럼 놀려저서는 머리가 헝하고 눈이 어질어워집니다。어른들 자신부터도 그러케 해보면 알것이 아닙니까?

울음소리를 분간하시오

우리는 말을 모릅니다까 그저 울기밧게못합니다。아퍼도 울고 자고시퍼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저저도 울니다。그러나 가튼 울음에도 슯퍼서 우는 우름이 잇고 안슯퍼서 우는 우름이 잇듯이 우리의 울음도 경우에 딸아다각각 다릅니다。조금만 찬찬하시고 주의가 기프신 어른갓다면 옹아옹아하는 다가튼 소리에서 각가지의 요구를 분간하야 내실수 잇슬것입니다。

나드리에 껴다니기실소

어른들이 조와서 나드리 나가시는데라고 우리들도조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활동사진이니연극이니 그런것은 소경의단청구경이지 우리는 보아도 모릅니다。공연히 괴롭기만 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잡을 자는것이 편합니다더구나 사람이 만흔데는 공긔도 나쁘고 모된 병균만우글우글합니다。그런데서 병을 어더서 고생을 하는것은 부질업슨 노릇입니다。

기저귀를 좀자조보시요

저즌기저귀를 멧시간이고채워두면 그 긔분이 어떠켓습니까?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는 고만 지처서 그대로 참노라니 고생이 막심입니다。먹으면 그만칩 싸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자조 자조 보살피어서 그것을 가라채우기가 힘드는 일도 아니려만 무심하신 어머니와 할머니는 밥븟이 그래서 못하십니다。그중에도 개화하신 할생어머니의고무기저귀는 참 딱질색입니다 공긔가 유통되지 못 하니까 살이 짓무르고 또 헐고아조 죽을 곤경을 치르게됨니다。

옷에도말씀 할일이잇소

조금만 치워도 에 감긔들라하고 두꺼운 솜옷을입히다 참문을 닷는다 야단이니 그러케 커가지고는고만만하다가는 정말 감긔를리기에 알맛습니다。신선한 공긔를 마시는 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고만 신선한 공긔와인연이 멀어저서 위생상으로도 해가 큽니다。그러고 옷이란 언제나 몸을 놀릴만큼은 되여야 할것이 아니겟습니까?비지방둥이처럼 맨들어 노흐니 어듸 꿈적어리기나 마음대로 꿈적어릴수가 잇습니까?

덧세 (1)

徐幼亭

우리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기릅니다。

개의 이름은 바둑이구요 고양이는 이름도 업시 그냥 고양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놈은 어떠케 된놈들이길래 한집에서 한솟 밥을 먹고 살면서도 보기만하면 싸웁니다。

내가 이것들을 잘 놀게 할려고 날마다 애도 만히 씁니다 만은 아모리 해야 하는수가 업군요。

서로 어터보기만하면 코스등과 눈살을 잔득 접프리고 니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으르렁거리고 노려봄니다。노려보다가는고 양이가 쪼껴다라납니다。바둑이가 우르르루 쪼처가면 고양이는 꼬리를 사타구니사이에다 감추고 뿌르르 다라나다가 마루를 깡충 뛰어올라서 방안으로 드리가서는 홱 도라다보면서 뻔안허바닥을 날름 날름 합니다。

「옹옹!죽겟니?네가나를집어、약아 올라 죽겟지?」

이러구 바둑이를 놀리는것 갓군요。 그러면 바둑이는 마루아페 와서 주충서면서

「요놈 보자! 나오기만하면 경친다」

이러고 벨르는것 갓습니다。

나는 이럴때마다 덩치가 큰 바둑이를 나무레지오

「저리가라! 저리가! 커어단것이 왜 그걸 그러케 못먹겟다고 구니!」

이러고 야단을 하면 바둑이는 슬금 슬금 것는집을 하면서 한구석으로 가서 드러누어 버립니다。

그러는걸 보면 바둑이가 가여운 생각이납니다。

그래서 문턱에 쪼그리고안저서 혀ㅅ바닥을내두르는고양이놈 보구도 나무랍니다。

「너두 까불지마라!역성을 해주니까 꽤도실허서 그러느냐?쪼그만게 웨남을 놀리는 거야」

이러면 이놈은 조곰도말이 아픈줄을 모르고 눈깔을 말똥 말똥 뜨고 나를 똑바로 처다보는군요。바둑이는 항상 마루 밋헤서자는데 이놈은 방안에다 재우면서 모두들 귀여워하니까 아조 말을 안라고 버릇이 업서서 못쓰겟서요

어느날은 이런일이 잇섯습니다。

가을볏이 쨍쨍히 마루긋을 쪼이든 아침이엇습니다。내가 세수를 할려고 대야에 물을 떠서댓돌우에다 노코 양추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어느틈에 이놈이와서 대야물을 할짝 할짝 할터먹고 잇군요。

이런버릇업는 놈이 잇서요。

그런데 이때에 별안간후다닥소리가 나드니 마루밋헤서 바둑이가 훅 뛰어나와서

「요놈 인제도…」

하는듯이 눈깜작할사이에그만고양이 목덜미를 덥석물엇습니다。

고양이는 네발톱을 따닥어리면서 애처러운소리를 지르드니 어느틈에 바둑이낫작을 화할켯습니다。바둑이는

「앗뜨거라!」놀하는듯이 고양이를 노아버렷습니다。

고양이는 멋모르를 다라나고 바둑이는 우르르를 뒤를 쪼차갓습니다

고양이는 마당가 돌담우로 샵뿐 뛰어올라버렷습니다。바둑이는 담미테 주춤서서 고개를 들고 처다보면서 으르렁 거리는테 그때마침 고양이가 뛰어 오르는바람에 저절로 떠려젓든지 고양이놈이 일부러차버렷든지 큼직한 똘뭉하나가 굴러내려서 바둑이 이마우에가 팡하고 떠러졋습니다。

바둑이는 깽깽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업시 뒤꿀러단임니다。

나도 깜작 놀라서 뛰어가보앗더니 크게 상처기는 나지 안엇습니다 만은 속으로 몹시앏흔모양이엇습니다

「아이 깨소곰 맛이다」

하는듯이 담우에 안저서 내려다보는 고양이놈을 단단히 나무렛지오。

야단을 처보아도 슬테가 업고 살살 달래보아도 듯지를 안코 이두놈은 날마다 이러케 차흥질만 하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第3回 中國料理講習會

時日 十月五日부터同十日까지(午後一時半부터 四時까지)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西大門一丁目停留場前)
講師 鄭順媛 女史 會費壹圓五十錢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굉장히 큰고기

미국칼리포ー니아놋에잇는 피서지가운데서도 가장 부자양반들이 만히모이기로 유명한『싼타·카타리나』섬에서 과히머지안흔 바다에서 무게가 구십륙판이요 기리가 십오척이나되는 괴상스럽게큰고기가 잡혓습니다。일홈은『안라레이』라고하는데 조선서 흥어니 가오리니하는고기의 종류랍니다 워낙야단스럽게커서 고기잡이하는사람도 처음보앗다하고 여간것에놀라는일이업는 미국아가씨들도 업을 딱버렷다합니다。

정말로 맛잇는 커피차를먹자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법식대로 끄려야한다

차ㅅ집에서는 물론이어니와 요사이 보통가정에서도 차차 커피차가 나오게 됩니다。물론 아즉도 우리네가정에서 내놋는 커피란것은 가루커피를 사다가 끌는 물에 탄것이겟지요만은 그중의 일부분은 벌서부터 본겨의 커피치를 맛보고잇습니다。본래부터 커피를왜 먹게 되느냐 하면 거긔는 세가지의 조건이 잇스니 첫재는 전하고 말큰 그빗갈로 둘째는 독특하게 향긔로운 그냄새로 셋재는 쌉사름하고도 뒤가 개운한그 맛입니다。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만이 구비치 안타고 하더라도 참다운 커피의맛은 일허버리고 마는셈입니다。가루커피를 자시다니 그게야 말이 됩니까? 차라리 구수한 일본차가도리어 그보담 조치안습니까? 그런데 커피차를 다리어보지안은 대에서는 그것이 한거정입니다。쉬운것도 모르면 결단이라 조흔 갈만 버리고 말게됩니다。지금 간단한 방법을 가르키어 드리오리다。아조 쉽고도 맛잇게 다리어지는묘방입니다。

(一) 커피차감을 습긔잇는 그릇에 담어 두지말것

(二) 분량을 정확하게 할것。한사람분에 서돈중이면 아조 알마즈니 한 폰드에 사십인분이 납니다。그런데 참고삼아 말슴이지 홍차는 한폰드에 이백인분、코코아는 한폰드에 일백삼십인분이 납니다

(三) 커피는 아조끌는물에 탈것。그것도 여러번끄린물이 아니고 한번에。와짝 끄린물이라야 합니다。알카리성의 물이나 경수(硬水)는 연수(軟)로 고처서라야합니다

(四) 커피는 결코오래두고 끄려 내지 말것

(五) 재바르게 탈것

(六) 커피를 탈때 그것을 거루는체라든지 그외의 딴 그릇에라도 전번의 남저지가 업도록 주의할것。

이상의 다섯가지만 직히다면 맛잇는 커피가 될수잇습니다。

위풍으로 보아서 잇서야할수염

처세하는데도적지안흔영향 어떠케기르고깍글까

수염이라 하는것은 남성의 위풍을 드러내고 그사람의성격을 상징하는것입니다

처번보는 사람의수염이 남겨노흔 인상은 기리기리 그 사람의 처세에 영향되는것입니다 수염이라하는것은 시대에따러서 그류행이 변천하는것인데 호걸과 영웅들의 초상을보면 수염이 그럴듯하게 나잇습으로 물수잇습니다 관운장수염、카이제르수염、차플린수염가튼것은 류행계를휩쓰는 멋쟁이 수염들입니다

수염은 사춘긔(思春期)가되면 자연히나는것입니다 머리털은 해롤거들하고 나히가 만허짐을 따러 업서지는데 수염은 이와반대로 나히만흘사록 터만허지는 것입니다 수염의발육정도는 인종에 따러서차이가잇습니다

『아이누』종족은 턱이만흐므로 수염도 만습니다 보통여름과 봄철에는 발육이왕성하야 하로동안에 한푼의 십분지일 가량의 기리로 자라납니다 머리털의 곱절을 더속히 자라납니다 더욱 밤보담 낫에 더만히 자라나는것은재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수염다령은 남자에게만 잇는것으로 아러서는 잘못입니다 부인네에게도 개변긔가 되면 상당히 만히납니다 구라파의 어떤 호한인종에게는 수염을 기진부인이 여간 만치안습니다 수염이란 하는것은 남성의『홀몬』의 작용에의한 남자의 제이차성징(第二次性徵)이므로 수염이 잇는부인은 끌격이나 규방이 모다남성화되여잇는 탓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그러므로 엄마전에 문제되엿든 녀자올림픽선수의 성별검정도 위선 수염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엿스면 합니다

수염의 수명은 이쌔동안이니 담부나서 끌리자면사변은 걸러야한답니다 레의를 숭상하는문화인이라면 수염만은 매일손질을 해야할것입니다 하로에 한번식 수염을 깍는것은 조흐나 잘드지안는 면도질을때일하면 피부가 상하기쉬우며 수염뿌리가 허러저서 모창(毛瘡) 이라는 병에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염을 물에 적시여 보드럽게 한다음칼드는 면도로 너무 누르지말고 천천히 깍근다음 냉수에 씨처버리도록 하는것이 조슴니다 냉수는 피부의 신경을마비시켜서 혈관과 모랑구(毛囊口)를 오무러트리므로 피부의충혈을 방지하고 불쾌한 균의전염을 예방하는것입니다 면도뒤에 얼골을 씻치고는화장용크림을 조곰바르는 것은 위생에조흡니다 수염에기름을 바르는분이 잇스나 이처럼수염을 간수할필요는 업습니다 수염이 조타는것도 남성위엄때문인데 기름을 바르는것은 남성의 위엄을 손상시키는것이니 의미업는 일입니다

미국영화배우들은 분을얼마나쓰나

―일년치가 자긔몸무게―

미국활동사진의 본고장인『헐리우드』의 영화배우들은 대체얼골에바르는것을 얼마만치나 바르는가 촬영소화장부주임인『펙·돈』씨가 얼마전에 발표한통계를보면 일년동안에 배우들이쓰는화장품의 분량이 자그마치배우들자신의 몸무게만큼이나된다 합니다

『매년에 여기서쓸 화장품은사오톤가량될 모양입니다『존·크로포ー드』는이때까지 일년동안에 약일백이십폰드가량의 백분을썻는데 자기자신의 몸무게가 일백십폰드인즉 몸무게보다 더만드니더만히썻읍니다 그런데남자배우가운데에서도『라이오넬·바리모아』는 굉장히 쓰는편으로최근에나온 영화두가지에 출연하느라고 얼굴에 바르는것만하도이폰드가량 썻습니다。

어쨋든 력사영화나 의상영화(衣裳映畫)가 번성하게되면 화장품가지 작구만오르고 말겟지요」

이것은「젝」씨의 말이다。

이뻐지려다가 도리혀봉변

나쁜화장품은절대로쓰지말일 조코나쁜것감별하는법

회장을 한다는것은 못난얼골을 어엽부게 보이도록 감추는것보다도 살결을 조케하기위한 위생이안될수업습니다 조치못한 화장품을 사서쓰면 그당장효험도 잘나지안흐며 장래에 큰영향이잇습니다 해로운 화장품ー례를들면 연(鉛)이 드러잇는 백분가든것은 법률로 발매를금해두엇스나 업꿈쟁장에 해롭지안타하드래도 효험이업고 리로웁이업는것은 아모리 써 보아도 소용업습니다 써서 소용업는화장품 몃가지를들면 첫재 배니싱·크림은『리스린』이라는것이 드러잇서야 하는데 어『리스린』대신에정분(澱粉)을 너흔것이 잇습니다 이런크림은 아모리발너도 종처럼 피지안습니다 그리고 효험도 업습니다그러므로배니싱크림을 사시거든 조곰만 터러서 따그릇에 너코옥도정기를 부어보아 자주빗으로변하면 전분이 드러잇는납분것입니다그다음 양모제(養毛劑)로서「페ー탐」이 만히 들어잇는것입니다 그러나 납분것은여긔에 몃두아들을 번성하는하글「알콜」을 씁니다 지독한것은 써서는안된다고 금지하여원을노 너흔것도 잇습니다 여긔에드러잇는알콜이 조치못하면 양모제로서는 낙제입니다 또한이속에석겨잇는 회발유도 광물질(鑛物質)인『파라핀』을너흔것이 잇습니다 이것을 아라내는데는 머리기름을 서거든 솜에무처서 불을부처보아 끄렴이나는것은 납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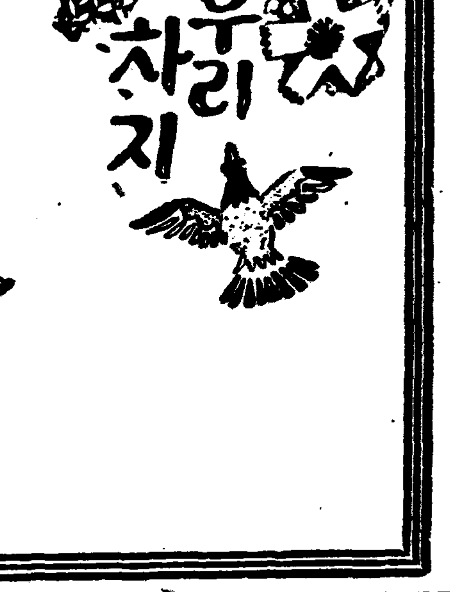
『포마ー드』에도 광물질이 드러잇는것은『암몬』정(性)가성가리(苛性加里)액을 타서보면 기름이따로 돌므로 곳알수가잇습니다 이러한것은 조치못하니 식물질(植物質)의 조흔것을 써야만 머리털에이롭습니다 백분의 나쁘고 조흔것을 아라내는데는분에다가 초를부어서 흔드러서근뒤에 엽한『옥도정기』를 부어보시요 그것이 반와누러케 변하면 이것은 나쁜백분이니 쓰지안흔것이 조습니다

목이쉬엿슬때

소리를 너무 노피질러서 목이 쉬거든 대초열스개에 물한홉을부어서 반홉이되도록 다라고 그다린물을 하로세번식 마시면 곳낫습니다

小科學

벌들이 적을막기위하야 가지고잇는무서운 무긔(武器) 그것은 꼬리에 달린벌촉한바늘입니다。현대의학이 자랑하는 주사침의릉뎡에는 이벌이 가진주사침과 꼭마찬가지입니다 적을맛낫슬때적의 몸둥이에 그바늘을찌름니다 그리고는 독한액체를 주사해버리면 그독이 퍼저전투력을일케됩니다 자연은엄마나위대한발명자입니까 그리케적고 정교한주사침을 지금의 우리네가맨들 기시울까벌들은 벌서여러수만년전 조상때부터이무기를가지고잇섯습니다



"말타고 소탄양반"

말탄양반 꿋덕
서울로 갓다가
소탄양반 꿋덕
들로 나갓다가
바리바리 소등엘
곡식을 실코
치렁치렁 말등엘
돈실코 오네。

(글·그림 오장환)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一五四
劇團喜劇座第一回公演 九月二十九日부터
正義의復讐 二幕三場 李露芳作
나의青春너의青春 鄭泰星脚色
好事多魔 一幕二場 洛山人作

優美館 竹鐵町 電光三九五
九月二十七日부터特別封切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후랑그보사ー기氏監督
眞珠의頸飾
마레네ー데도리히 게리ー쿠파ー 主演
P·C·L·超大作全發聲豪華篇 岡田敬·伏水修監督作品!
歌ふ彌次喜多 古川綠波 德山璉主演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小澤得二氏監督作品!
刺を踏む女 琴糸路嬢主演 北見禮子 片桐敏郞 助演 三益愛子 鈴木桂介 高尾光子助演
廿九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廿分)
◆유나이테드社超特作映畵 喜劇王에데이칸타主演 노만타로그監督
百發百中칸다
一年一次式興趣잇는칸다의喜活劇에鼻哥과哄笑에마음곳解하여보십시요
◆코롬비아社超特作映畵 체스타모리스主演
無法地獄
늘보아도그痛快한스릴은이질수업는깽그映畵
◆코롬비아社最近의快作品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畵 阪東妻三郞主演
夜明ケ島 高津慶子、歌川八重子助演
(次週封切)生活의道、國際間諜團 近近封切마스르카、艦隊를따라서 루이스對介메링肉彈十五回戰 카르로의銀行破産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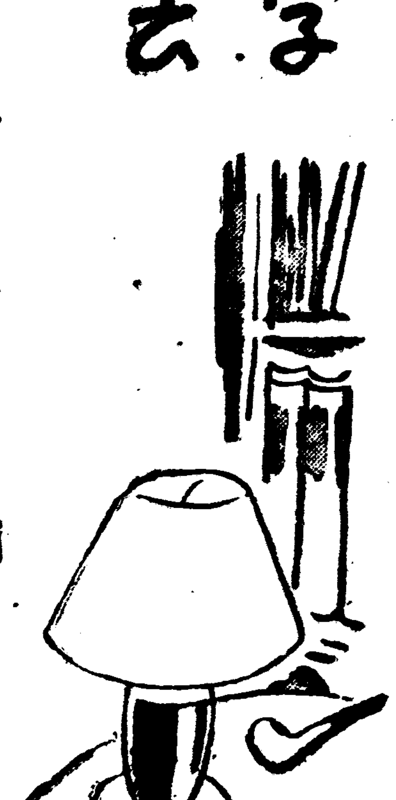
團成社
九月三十日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十日은仲秋明節임으로特別晝夜二回上映
◆유나이테드社超特作發聲日本版
名篇 가시면몰라요 監督…빠올신나氏 主演 에리사베ー트벨크나孃

薔薇色遊覽船 時代劇 荒神山
次週 十月三日부터

浪花館 電話二三○○番

朝鮮日報社 安岳支局 電話二八番

學藝



『데오·휴마니즘』論
—그根本的性格과創造의精神—
② 金午星

이리하야 理性은 人間의 온갓行爲를 規定하는 一般者로서 自由와 온갓法則을 獲得하게 되엿스니 新形上派 生의哲學派등을 派하야

……理…… 性의 法則은 自然科學에 對應되는 精神科學을 엇더케노케되엇이다。이러하야 形式主義는 完成되엿것이다。

精神科學의 法則은 自然法則과 가티 絕對的이다。人間은 어 絕對的인 理性의 法則에 服從하지안흐면 안된다。이것이 그들形式主義、理性主義者의 主張이엿다。그러나 今日에 와서는 이러한 絕對的命令도 아무런 힘을 갓지못하게 되엿다。실상法則的思惟란 우에서 본바와가티 近代商工層의 生活態度를 反映한것이엿다。하나『一二는四』가 아무리 自明의 理法이라할지라도 今日에와서는 잘適用되지안는다。아무리正確한 計算미테서 一定한 資本과 技術을 드려도 今日의 恐慌이란 現實은 거긔에 따르는 一定한 利潤을 맨드러주지 안는다。여긔에서 오늘의 危機는 나타나게된다。이리하야 理性主義者들이 理性의 法則으로 合理的으로說明하고잇든 現實은 너무도 非合理的混沌狀態를 보혀주게 되엿스니여긔에서 理性의

……絕…… 對確法則의 信用은 陷落하게 되엿이다

今日 文化의 危機는 이러한理性的法則에의 懷疑에서 始作된것이라 아니볼수 업는것이다。大戰以後 따따이즘 不安哲學 不安文學등의 데카단的傾向은 이러한 理性的法則思惟에의 懷疑에서 나타난現象이다。

自然法則은 理性의 法則과는 反對方面에서 社會認識의 領域에 浸透하야 일은바 社會의法則 또는 客觀的法則을 맨드러내게 되엿다。『금이 百度를 끌으면 밧듯이 넘는다는』 自然法則은 『貨幣가 濫發되면 반다시 恐慌이 생긴다는 經濟的社會的法則으로 옴기게 되엿다。

自然이 人間의 恣意를 不許하는 自己獨特의 法則을 갓고잇는것과가티 社會도 個人의 恣意를 容許지안는 獨自的 法則을 갓고잇다。

社會는 自己自身의 發展法則을 갓고잇다。社會는 物質的運動에 依하야 生産關係로서 일너지면 어느一定한 發展階段에 가서는 반드시 새로운 生産力과 矛盾이 생기여 生産力의

……發…… 展에 桎梏이 되여버린다。이러하야生産關係와 生産力과의 矛盾衝突은 반드시 後者에 依한 前者의崩壞를 나타내인다。여긔에서 새로운 生産力을 基礎로하야다시새로운 生産關係또는 社會的關係가 成立된다는것이다。社會의 이러한 辯證法的 發展은일은바客觀的 必然의 法則에 依한것으로 누구나 이法則을 反抗할수는업다。人間은 오직이러한 客觀的法則에 依하야 歷史的으로 賦與되는바 役割을다할뿐이요 主體的인 能動的行動이란 可能한것이다。그럼으로한개의 歷史的 運動이란것은 生産關係의 自己矛盾에서 생기는 한개의 物質的作用으로 새로운 生産力과 짝하야 나타나는 歷史的 役割에 지내지 안는것이다。이리하야社會科學은 人間의 能動性을 客觀的法則미테서 埋沒시켜버린다。(唯物觀史에 對한 나의 이러한 評價에 憤慨를 느낀 林和氏는 맑스의『포이엘빠하테-제』를 들고 나와서 唯物史觀도 人間의 能動性을

……認…… 定한다고 抗辯하엿다。그러나 그는 맑스의 靑年期의 一斷片만을記憶하고 經濟學批判 또는 資本論著書의 圓熟期의 思想을 忘却한 모양이다。客觀的法則이絕對的일때 人間의行動이 受動的일것은 唯物史觀의 體系로 보아서 오히려 當然할것이 아니냐?)

그러나 파-시즘의 擡頭等의 現實的條件의 變化로 말미암아 일은바 客觀的行動이 停止된以來 客觀的法則에 對한 信賴도 지즘 稀薄해지고 잇는것이 事實이다。이즘와서는 唯物史觀의 陣營에서 스사로 自己를 [illegible] 浪漫主義 또는 휴맨이즘에 讓步하지안호면 안될 現狀에 일으럿스며 더욱이 이즘 歐洲의 人民戰線가튼것이 大體로 휴맨이즘에 依하야 指導되고 잇는 現狀은 한층더 客觀的法則을 絕對視하는 唯物史觀에 動搖를 느끼게 하고 잇는듯 십다。實際에 잇서 社會라는것이 人間의 社會이란에서 人間의

……能…… 動性을 前提로하지안코 그社會의 새로운 發展을 생각할수는 업는것이다。社會는 一定한 自己法則을 갓고 잇슬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일은바 社會的法則은 人間을 絕對的으로 制約하는것이 아니요 人間의 能動性에 依하야 變化되며 創造되며 發展되는 그러한것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九
大邱府南山町六五六 許善

葉嶼花潭秋氣尋、
翻生翠蓋淸凉意、
幽人相對日披襟、
亂作紅粧熱鬧心、
香溢千家風蔌蔌、
淤泥淨植稱君子、
珠傾萬斛露沉沉、
惟有濂溪愛爾深

現代英詩의動向
여러가지流派와그作家들
(三) 林學洙

(1) W·H·오-든

三十歲를 조금넘은 靑年인듯 그러나 以下列擧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經歷等에 對하야서는 아직알길이업다。一九三○年『오-든詩集』一九三二年『오라타-스』를 낸는데 特히 後者는 그의 偉大한明日을 確實히 約束하얏고 여기서 그는다른누구보다도 그들의 網領의 第一條를 거이 完全히 解決하얏다한다。

卽 그는精神分析的이여서 聯想과그自身의 內部聯關을 한히 表現하얏는데 도한諷刺的의 覆創力과 豐富한 活力을가젓고知的能力도 優秀하다한다。더구나 그는 一方、人間社會를 凝視하고 敏感한 사람으로서의 이社會에 處하야行할바 必要한 行動을 暗示하얏다。材料를엇는데 極히 制限이 되여잇슴뿐 더러 昨今에는 詩上에서 直接 그의 作品과 接할 機會가 업슴으로 여기 例證치못함은 遺憾이어니와、何如間 形式的으로 보아多岐多路한 現社會相을 反應하는 複雜한 表現과、內容的으로보아 詩라벌서 單純히 사람을 慰安하는것이 아니라 보다큰 使命이잇슴을 自覺하고 思索과 模索과 懷疑와 苦惱의 彼岸에擦然한 理想을 發見하야 雀躍하는것이 그들靑年詩人들의 特徵인것이다。

(2) C·D·루이스

『그리손』은 말하되 一九二八年에낸 루이스의 詩集(Country Comets)는 十九世紀詩에서 完全히 버서나지못하얏고 一九二九年의『過渡期詩集』에서는 相當한距離를 뵈엿스며 一九三一年의『깃(羽毛)에서쇠(鐵)로』에서는 『아이디아』와 情緖가 頻繁히가장適當하고 가장새로운』이미저리』에 합께합머로두들려 드러잇스나、그가 지금製作中에잇는 『磁力잇는山』은 確實히 그의進展을 注目케할것이다 라고하얏다 果然『磁力잇는山』은 그들에게잇서 큰收穫이엿스며 그가 가장 優秀한 詩人의한사람이라는것을 證明하얏다。

『磁力잇는山』(magnetic Mountain)이란 그의 理想社會를가라처임음으로 이詩集第三十六의詩에서는

어제 最終의 合唱을위하야그대들의 목소리를 날려라、
술잔을 드려라 明日의健康을 祝盃하라—
우리들을 治療할려는 醫師의 成功을 그리고 다시는 富를 차저 헤매다죽지안홀 그들을 祝盃하라。
우리들의 磁力잇는山우에는타오르는烽火가
머잔어 깨끗한地球우에 가장 明朗하게 우리들이 바라던平和를 印치리라。그리하야 모든民衆은 어린애들의눈과가티 日光을맛는 해바라기와가티모다追從하리라。

이와가티 希望의曙光을發見한 歡喜를소리노펴부르지젓스며…今年一月號의『런던머큐리』에 載된 그의佳作 A Chorus를 보건대

그대 이다지 멀리 왓나니、
그대의 여러한過去 蒸汽船의 자최는 거꾸러저退却하는 時間의물결우에 점점히미하야저가나니、
그럼에도그대 죽은港口의선물
熱情과恐怖의貨物과
그대가슴에 또렷이살아잇는사랑과 陸地와
만흔 深海의苦境의 記憶을가지고왓나니、—
어느별로 그대의目標를 삼는가 생각하야보아라。
그대 저어가는 航路를 알고잇는가
또는 이바다의 한가운대에서 憾업시 방황하는가를 생각하야보아라。
그대 이다지 멀리
다음한거름이면 이空漠한大地로떠러질 高原의斷壁에까지 왓다니、
그대思想은『안레나』가티 未來를향하야 의심스러히떨고
그대意志는 이不安한 空虛를 피하기위하야 지향업시흔들리도다。
………
그러나 한거름만옴기면 이물업는高原에 오직죽엄이잇슬뿐、
그대 깨트리고날려라、날려라 머리우로。

이러케시작하야 大地를도라보고 한쪽에는主敎들이 건밀던잔디밧이잇스니 그庭園은 닥창으로둘리워 아모리그대의欲望이그리다를바질친다하더라도 非公開의것이요、한쪽에는 飢饉이얼크러지고 죽엄이茂盛하야 果實의 必要와 復活의씨홈이 버려저잇다하고最後에

그러면 그대의눈을 저限界업는景致로 저衰退해가는 愉安의섬우로돌리라。
挑戰者에게報復할 氣焰과 저深淵을 橫斷할 飛躍을 計量하라。
………
그리고 미드라、이를건너어애보다더幸福된나라가 누어잇다는것을。

함으로맷첫다。

『改造』에紹介
二作家의短篇

—崔載瑞氏飜譯으로—

評論家崔載瑞氏는 文壇現役作家의 作品으로 東京文壇에 飜譯紹介하려고 改造社와 交涉을하여서 우선그第一回試驗으로 改造十月號에 李泰俊氏의『꼿나무는심거노코』 朴花城氏의『旱鬼』를 飜譯紹介하엿는데 압흐로도 機會잇는대로이 活動을 繼續하라라고한다。

……花壇의辭世詩……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의歷史的考察
史話와傳說에서보이는그全貌
(三) 司空桓

그神卓의뒤로는 正面壁上에 神幀을 걸어 帽帶한 人物에侍女가 西南顧을 들엇스나 帽帶가 호려저서 잘보이지안코 오즉 侍女가 本像을 지엇슬뿐이며 엽호로「國師大天王」의 顏이잇으니 紅頭靈祠에比하야 그廟貌와 內容이 적지안케틀리며 神卓앞에 香案香爐가잇서巡禮者들의 香피운재(灰)와 賽錢이卓上에 깔녀잇다 여러가지로 보아이 虛頂顯天王堂은民間信仰의 殿堂으로만되엿든것을 짐작하겟다 또無頭峰東餘神武城 이곳은四千七百八十二尺되는 高地에 잇는데、(우리의 八月十一日밤露營하든곳) 옛날 白頭山神을 奉祀하든 廟址라한다。이 天王堂과 廟址에서 過去와 將來를 默想하든 우리의 心情은 果然어더하엿슬가、讀者諸位의 自由解釋에 맛김뿐이다。

國境의沿革

【가】諸族의興亡、白山黑水와遼野渤海、一萬里舞臺의 靈域은 鞨風漢雨와 鞨馬胡騎、半萬年戲劇에 悠久複雜한 記錄을 가진곳이다 檀君治世一千年동안은 아모말성이업시 지냇모양이나 그뒤 白頭山을 中心으로 여러民族이 이러남에 咸鏡道와 間島一帶는 風塵이 꼿힐날이 別로 업섯다 漢武帝時에는 玄菟眞番의 二郡이되고 高句麗가 이러남에 鴨綠 豆滿 兩江 流域을 容易히 自己版圖안에、너케되엿다가 羅唐聯合의 侵入을 當함에 그遺族大祚榮이 亡國의 눈물을 머음고 太白山東北에 遺民을 모아서 大震國을 建設 하엿다가 西紀十世紀에 遼國이 이러남에 渤海는 다시 우리 城內에 드러오지 못하엿스나 間島로 말하면 高麗朝에는 或엇고 或며러지면서 만히 女眞人의 居地가되것을 李朝에와서 그地域을 經略하다가 明治四十二年『中國의間島』로 決定되고마랏다

【나】尹瓘의 北征과 金宗瑞의 北伐、渤海의 國民이든 靺鞨族이 뒤에 女眞이란 이름으로 시방 咸興以北에 흣허살면서 高麗의 疲弊한틈을타서 자조 邊境에 근심을짓는지라 距今八百二十年前 睿宗二年에 都元帥 尹瓘이 十七萬大軍으로 出征하야 女眞을 邊外로 물리치고 九城을 새로쌋고 先春嶺上에碑를세워처日高麗之境이라하엿스며、아조地에 南方백성을移住시켯다그後 李朝에와서 太祖大王이 北境을 開拓함에 江內女眞은 同化시켯스나 大江越便에 잇는 女眞 곳野人이 자조襲來함으로 그經營은 대단 困難하엿다 世宗大王께서는 萬年大計를 세우사 南方人民을 强制的으로 移住시키며 一方金宗瑞를보내여 野人衛女眞을 驅逐하고、境內에 六鎭을두어서 胡人을防禦하며 河邊低地에 一帶長城을쌋서 들어오지못하게하고 蕃胡(歸順野人)로써 江外野人의 動靜을 監視케하엿다 그뒤 淸朝가 일어남에 勢力所致로 國境이分明치못한채로 會寧을 開市場으로하야 春秋二次의 交易을行하엿스며 間島(墾土)이地帶를 兩國間의 閑曠地帶로 비울엇스나 流民의 秘密耕作으로 居하는者가 만허서 거북한일이 생기거늘 肅宗은 六鎭中 富寧을廢하고 그代身으로 茂山을加入하야 國境을 嚴重히 注視하든中 三十八年에 兩國協定으로 定界碑를 만들게되엇이다

【다】定界碑의來歷 白頭山을 말함에 定界碑를 내어노흘수업다 松花江源流인 土門江으로 나려가는 溪谷을건너 分水嶺上에 올라서면 二千二百餘米의 高地帶이지만 편편한 실등등으로써 풀과이끼가 두터운곳에 所謂國境을 表示한듯 돌무데기가 十里許나 군데군데나리노코 平素에 記錄上으로보든 短碣은 간곳업시(昭和六年夏埋沒하엿다)。말득한個가 代身하야 서서잇다。이國境問題는 韓淸兩國사이에叫어수수선한 爭論으로 學者와 外交官이 여러十年동안 머리를알튼일이나 그爭論의 原因을집재 우리 最初祖上에게서 부터 몰러나려오는 國土意識의 우에잇서 白頭山은 國內의 鎭山으로하는 傳統性、즉잡아도 白頭山을 城內의 宗山으로두고 그周圍의 一帶로서 우리겨레의 生活地를만드라는 强烈한 欲求가 잇서엇슬것이요、둘재는 歷史的非妥當新界力에 對한 民衆의 白頭山 護持運動과 北方意識의 覺醒이라하겟고 셋재는 白頭山과 그 環圍地가 朝鮮人의 發祥地이며 根據地할뿐아니라 이곳을 桑梓鄕으로 傳하는 愛鄕意識보다 먼저 李氏의 發祥地이라고 생각하면 아모리 李朝에서도 업는내어노코 모른는체할 理由는 것은 勿論이다。그럼으로 白頭山靈과 豆滿江神의 奉祀、金宗瑞의 北伐과 六鎭設置、藩胡의 歸化와 人民의 移住等여러가지 政策으로 經略하기에 努力한것은 文獻에도 昭然한바이다 그런데 이野人이 차차자라서 滿洲의主人으로 中原에 君臨하면서 滿洲를 民族的發祥으로 崇護하는 同時에白頭山을 그先祖의 發祥地라하야 禁封하기에이르러 彼我間에 한장승강이되다가 畢竟白頭山을 中心으로하야 鴨綠、豆滿兩江의 越便若干의 一中立地帶를 베풀고 누구든지 도모지 居生하는 禁防하자는 無理한 約東이 勸成하게되엇다。그러나우리가 아모리 그러케하고서도 經濟的 歷史的 信仰의 心理的으로 제스스로 어찌하지못할 良心이잇는바에 여긔對하야 最後까지의 抵抗이업스래야 업슬수업슬것이다。그런데 朝鮮의 北境인 鴨綠、豆滿兩江이라한이 適確한 界境입기로난해하가지이요 淸人의 獨斷에서 나온것이지마는 西의 鴨綠流域은 彼의 威厭과 我의退嬰으로 頭하야 어느새엔지 制度上 國境을 일우게되엿스나 豆滿江流域은全혀 事情이 다른만큼 紛爭을 멀리理由가 濃厚한것도 諸人自身도 잘알고 잇슬것이다。그러나 領土欲에 熱中한 淸朝는 威權을 恣弄하야 그 獨斷的所信을 實行함에 熱腸도 躊躇도 도라보지안하엿다。

康熙五十一年은 肅宗三十八年壬辰(西紀一七一二)이라 康熙帝의 勅使인 烏喇總管穆克登이 長白山一境을 淸朝發祥의 聖地로 管有코저할새 그食大倨傲한生각이 이미 獨擅的行動에나오려 하엿거늘 朝鮮의 勘界使 朴權(參判)과 咸鏡監司 李善溥는 貴骨두사람은 中途에서 도라오고 軍官譯官 몃사람이 따라가서 저들이하자는대로 淸人의 單獨으로 세우다십히세워버린것이 所謂定界碑그것이다。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슈벨트」

【피아노】 一、「소나타」(F長調)—第一樂章—「모찰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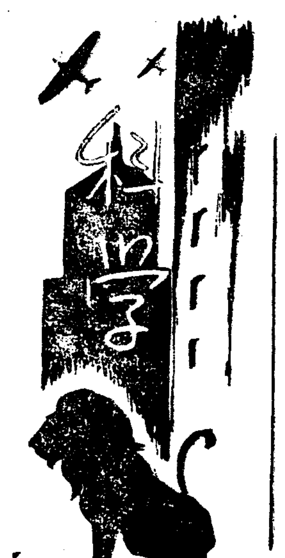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풍쿠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科學의수수꺽기—
델린저現象檢討
五十四日週期說도崩壞되나?
② 延專敎授 崔奎南

이光을 分析하야보면 黑點內에는 매우激烈한 渦形運動과 强한磁場의作用이 잇는것을 可히 推測할수잇다 또는 以前부터 黑點이 地球에 及하는 影響 即 特別히黑點과 氣象과의 關係는 만흔 學者들은 研究해오든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 氣候의 突變하는것을 볼때에는 太陽黑點의 影響이라고 미더왓섯다。

그러나 學術的 見地에서 信用할만한 直接關係는 아즉 차지못하엿다。現在에잇서 黑點과의 密接한 關係를 가젓다고 생각되는것은 地磁氣 地電流 極光等의 現象이다。그리고 最近科學界에 큰話題로되여잇는 이 無電障碍와도 亦是 密接한 關係를 가진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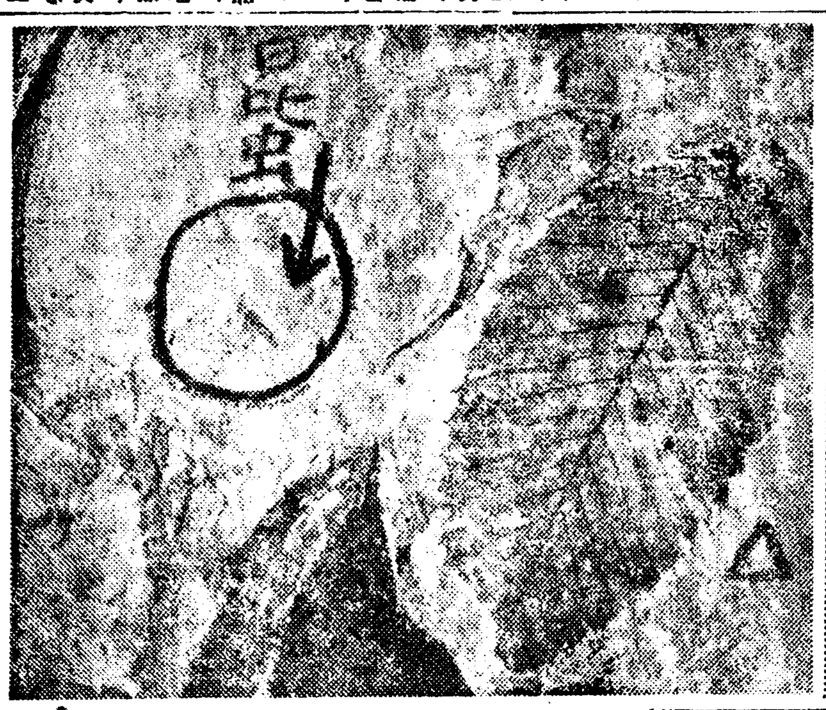
實際 델린저博士의 報告에 依하면 昨年十月十日頃부터 太陽面 中央部에 黑點이 나타나기를 始作하엿고 그와 同時에 無電通信狀態가 매우 良好하엿다고한다。同十月二十一日 乃至二十三日間에는 短波振動數의 最大限界가 (Maximum Limit) 最高記錄에 達하엿다가 同月의 二十四日에와서는 突然히 事情이 卒變하야 通信可能의 振動數의 最大限界가 前日値에 比하야半分假量이나 低落하엿다가 當日 二十五日에는 다시 恢復되엿다고한다 이러한事實을 綜合하야 본다면 엇던振動數以上의 短波만이 障碍를받는것이分明하고또는 太陽點의狀況과 直接關係를 가젓다고미더진다

太陽面上에特殊爆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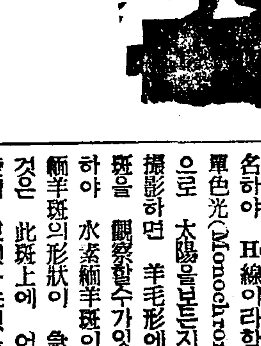
이無電障碍가 어떠케되여 果然太陽面上黑點에 如何한變化가 이러나느냐?가 다음으로 오는 問題이다 이것을 正確히調査해보라고 델린저博士는 미리太陽面觀測을 윌손山天文台長 헬博士에게 依賴하야 두엇든것이다 그래서 同天文台에서는『리치드손』氏의 손을거처 精密한 太陽分光器를 使用하야 觀測을 行하엿든바 果然問題인 二十四日에는 數分間『水素綿羊班』의形狀 及强度에 急激한 變化를보이엿다한다 所謂水素綿羊班이란것은 무어인가? 水素가 發하는 Hα線이라고부르는 輝線(水素輝線스페트럼中 第一첫재線을 名하야 Hα線이라함)에 相當한 單色光(Monochromatic Light)으로 太陽을보든지 或은寫眞을 撮影하면 羊毛形에 恰似한 縞班을 觀察할수가잇나니 此를名하야 水素綿羊班이라고한다 此綿羊班의形狀이 急激히 變하는것은 此班上에 어떠한 特殊爆發이 잇섯다는것을 推測하게되다『월손山天文臺』에서는 此問題에 큰興味를가지고 以前에無電障碍가 잇섯다는 七月六日八月三十日附의 觀測을精密히 調査하야본즉 亦是同一한 特殊爆發事實이 잇섯든것을 알게되엇으로 此爆發事實이 틀림업시 無電通信에 影響을及한것으로 알게되엿다

이와가튼 太陽面爆發의 觀測은 其後 今年二月에와서 英國『그리니지天文臺』에서도 行하엿다 그때에도 七日頃부터 特殊한 活動을 보이는 黑點이나타나기를 始作함으로 同一한 實驗裝置 卽太陽分光器를 使用하야 觀測해본結果에 水素線에異常性을 檢出하야내엿다 此黑點은 二月十四日에 太陽面中央部를 經過하엿는데 그때까지에 八回의 爆發을 觀測하엿다 特히十四日에와서 中央子午線經過後十二時間假量해서 이러난 爆發이 가장큰것으로 그때에 水素釐雲이每秒二百十粁의 最大速度로急히 外方에噴流라가 約十分後에 다시 太陽面을 向하야後退하는 現狀을 觀測한것이다『그리니지』天文臺에서 此現象을 觀測하는 同時에 他地方에서는 十四日 太陽面爆發後 約二時間後에 短波無電障碍가 잇섯다는것을 國際物理實驗所(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立證하엿다 障碍時間은 約二十分程度이엇다고한다。

化石



分明히 보히는 形態、그대로 어제그제 떠러진 落葉갓지마는 이것이 실상은 몃百萬年이나 묵은 化石이라니 自然의 神秘에놀라지 안흘수업다、그여때 昆虫의化石도 잇다고하나 보히지는아니한다。



▲求職 저는今年二十八歲의靑年이온대 市內某齒科技工師로多年間잇섯습니다 本人은此技工職을求하오니 有意하신 先生이게시오면 左記住所로卽接通知하야주심을바람니다
市內往十里町七三〇의二二 金鎭錫

▲九月十五日付 京城求婚女에게 三十二歲의靑年 學力은小學을마치고 英文學을 研究하엿고 現在穀物貿易商함 有意하시면下記住所로 卽接寫眞과條件을말하시요。
元山府榮町九四 朝日彰

▲朝鮮日報讀者여러분! 北滿哈爾濱에서 二十五年前에放浪生活로지나다가 只今까지消息이업는 鄭大仁氏를 누구시든지 住所와居處를探知하여 此住所로알려주시는 讀者가계시다면 謝禮金一百圓을드리겟나이다 此社交欄을通하야알려주시요 身長五尺四、五寸顔形長方으로얼근것이特色 左手首(無名指)가 조금火傷으로 흉터가잇는것等이오며年齡은五十八歲입니다
釜山府幸町一六二 鄭在院

▲滿洲國奉天府在住 京城府 平壤北面栗谷里에 本籍을둔 [illegible]和는 約三年前에 滿洲로 떠나엿자 온대 于今것消息이 無하와 死生을 莫知하오니 現住存亡을아시는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야주시면사禮을드리겟습니다
京城府明倫町三丁目五三 白能基

▲小生에게 最近法學講義錄全部及 其他 法學參考書와 井上英語講義全部等이 有하오바 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紙上又는 卽接으로 本人에게 照會하야 주시압소서 其他 戶籍例規等도 잇습니다
咸南西湖津一七八崔淳京氏方 崔鳳九

▲九月二十六日(土)貴社社交欄(第五五一六號)을 通하야 第三周求職女에게答합니다。貴下는健康狀況과 職業希望에對한 具體的方面을記入하고 寫眞一枚를添付하야 左記住所로直接通知하시요
大邱府外內唐洞一〇三三의四 金永鶴

▲長興에 S兄이여 小生도同志書籍을要하는대 兄에게必要치안흐시면 直接左記住所로 價格을下告하여주시요 (入要書籍名) 法學通論、朝鮮行政法、民法、刑法 普文試驗問題答案集
(住所)全南咸平郡海保面龍山 李喆範

特히 滿洲게신讀者諸氏에게 間請하겟습니다 저의兄金萬開가過年滿洲를갓스나 엿때까지 아무消息이업서니 滿洲方面에게신분께서 或아시거든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며크게感謝하시겟습니다 잇지마시옵고 記憶하야두엇다가 알려주시기를 千萬伏望함
朝鮮慶南陜川邑內 金德開

▲二十三日附全南長興出生에게 못合니다 本人이 普文試驗準備를 하라하오니 貴下의 所持하신 普文準備書籍(紙上書籍全部)을 幾何의 價格으로 讓渡하시려는지 至急本社交室을 通하야 알려주십시오 貴下의住所氏名도 알려주시면 直接通知하겟나이다
平壤K生

▲日前二十二日夕刊에 全南長興S生氏의 普文準備書에關하야 좀仔細이알고자하오니 本報를通하시든지 左記住所로알려주시든지하옵소서
京城北町一二五番地 具昌會

▲今番小生이 事情에依하야家庭敎師를希望하니 採用해주시기요 通勤하는데는總督府오며 다른條件은無하옵고 다만食事와房만주시면可합니다 中學時代에한번잇서본經驗과 普校敎員도해보앗습니다
鍾路五丁目二二 金升五

▲左記書籍을 讓渡하실분은엽습니까? 本欄을通하야알려주시오
(新版)早稻田大學文學講義錄 (全部)
厚生閣文章講座 (全部)

新刊紹介

▲朝光十月號(內容) 가을의 讀書三昧境=柴柱東外諸氏、가을의愛誦詩=李軒求外諸氏、가을바람에부치는편지=李孝石外諸氏 全鮮的水災와 治山治水의 急務=咸尙勳、中國의漢字廢止運動、三南水災害地踏査記、家庭과音樂、實話=男性恐怖時代 映畵藝術(소리와)、實話記、民俗과野談、創作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本社負擔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九月號 發行所 新京朝日通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三十錢 送料二十錢

▲主日學校申報 第七十三號(月刊)發行所 京府鍾路二丁目 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 一六三八番 定價一部四錢

▲靑年太陽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京城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運輸界 九月號 大田、金泉榮者紹介號 發行所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朝鮮鐵道協會誌 第六號(月刊)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鐵道時報社 定價一部二錢

▲基督敎報 第七十五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定價一部五錢

◇女性 十月號(內容)十三道女性巡禮=咸鏡道篇、家庭太平記=崔鄭金鐘遠氏와夫人女醫吉眞亨氏의말씀 가을과女性、日記抄=京保尹榮寶 中保鄭信愛 美人과言語美 文人과가을 隨筆 小說 詩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聖書朝鮮 十月號 發行所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番定價十五錢

連載野談

布囊記 (一三)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믈캐든총각 (十六)

지명대왕께서 국사(國師)를 부르라시는 령을 내리시뮈 얼마 아니하야 국사(國師)지명대사(智明大師)는 법의(法衣)를 가추고 어전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 합장배배한후 국궁하야서고 상대등 솟아비(首乙夫)이하 조정의 문무대관이며 여섯마을 촌장도 좌우로 반열을 차저 서립하니 그위의(威儀)가 장엄하얏다。

죽는가?。

사는가?。

선화공주의 죽고 사는것은 국사지명대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듸 말에 달렷다。

그리하야 어전에 모흰 여러사람의 이목이 지명대사의 입신에 쏠린것은물론。진평대왕께서도 은근히 지명대사의 긔색을 살피시엿다。

지명대사는 멀직 어려서부터 당(唐)나라에 들어가 여러 노픈도승(道僧)에게 도행을 배웟슬뿐아니라 천축국(天竺國)까지 들어가서 가세존(釋迦世尊)의 끼치신 신령한 터를 두루 단이며 불사(佛事)의 노픈 도를 실제로연구하고 또한편으로는 인도(印度)의 문물제도를 보살피며 그도행이 노픈것만 아니오 세상의식견까지도 넓어 큰 학자의자격과또는 나라를 다사리고 천하를편화롭게하는 큰경륜과 포부를가진 중이엿다。

그런중에도 지명대사는 특별히、마음을 모와

「공번되것을 밝히고 행실을경계(原文=明公戒行)하는것은불사(佛事)를 바뜨는자로서 도(道)를 닥는 영원한 큰도리어것은 다만 불가에서만 취할것이 아니오 임검으로써능히 명공계행을 하는때는그나라를 빗내고 백성의 원망이 업슬것이오。신민(臣民)된자로써 능히 명공계행을 하는때는 충의를 나타내여 그신민된 도리를 다할것。그럼으로 이명공계행은 인류(人類)의큰덕(大德)이어니 누가 삼가지 아니하며 힘쓰지 아니하리。」

하야 과연 그명공계명으로써도(道)를 닥는데 정나잡이를 삼고 충성을 기르는데 젓(乳)을 삼엇다。

이와가티 지명대사는 도가놉고 학식이 넓으니만큼 진평대왕께서는 다만 국사(國師)로써 나라의 큰일을 물으사 배우실뿐아니라 지극히 공경하엿다。

그런데 지명대사가 어전에국궁한뒤에

「경을 부른뜻은 궁중에 큰일이잇는바 이것은 우리나라에 무거운 관계가잇는일。짐의단독 의견으로는 처단하기 난중할뿐아니라 조정의 뜻을용납하야 경의 의견을 듯고저 한것。」

하시며 선화공주에 대한일을자서히 설명하섯다。

「황송하온일이온줄 알외오。장차 어찌 처분하옵시려는지、감히 알고저함을 알외오。」

하고 지명대사는 진평대왕께서 장차 행하시려는 뜻을 되물려 물엇다。

「그런죄를 지은때는 그것을벌하는 나라의 법이잇스니 그 법대로 화형(火刑)을하야 천하에 경계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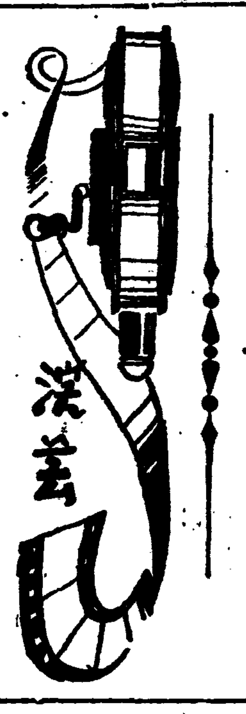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지명대사의 긔색을 또살피섯다。

지명대사의 그청수(淸秀)한얼굴 비츤 마리 눈과가티 하고 거울과 가티 맑어 천지만물은 고사하고 사람과사람의 착하고 악한 마음까지 드려비치는듯。바람에 약간 호늘니는듯한 그 숭엄한 법의(法衣)자락은 이천지간와 악하고 사특한것을 멀리물니치는뜻。그장엄한 긔색과 태도는 임금의 지존으로서도 서로 맛대하기가 조심스러운것을 느끼시엿다。

「황송하오나 공주아기께서 그런죄를 범하섯다면 그것이큰일이아닌바 아니오나 무릇나라의 법을 쓰실때 그법을법대로 잘쓰고 못쓰는것이 떠욱 큰일인것을 알외오。황송하오나 상감마마께서는 공주아기씨를 그러케 중한 형벌을 내리시려는데 대하사 쟉을도 미흡하신것이 업스신지、감히 알고저 알외오。」

하고 지명대사는 선화공주를떠이러는것에 대하야 [illegible] 도 의심되온것이 업는 여부를 물엇다。

이말슴을 듯고 잠간 진평대왕의 긔색을 살피는 지명대사의 새별가튼 두눈은 분명 진평대왕의 성충(聖衷)에 어느점은 밝으시고 어느점은 흐리한 그호백을 차아보는듯하얏다。



古典歌曲의 再出發
『唱劇春香傳』評 (1)

洪鍾仁

朝鮮聲樂硏究會主催로 東洋劇場에上演되엿든 唱劇『春香傳』에 對한 所感을 쓰기에 먼저筆者의 立場을 말해둘必要를 늣긴다

一、即筆者는 朝鮮歌曲에對해서 門外漢이지만은 音樂的內容을 探究하려는 若干의 興味를가지고보앗다는點

二、唱劇春香傳이 唱劇으로서舞臺에 上演된것이 今日의觀衆에게 舞臺效果를 얼마나 가젓스며 또어느程度의 不滿이 잇섯다하드래도 그人員과그劇內容을 가지고 改良의 餘地가 얼마나 잇는가 하는點이엇다

◇

全六幕을 보고난 筆者는 唱劇春香傳은 古典文學과 古歌曲의새로운 復興으로서 六七分의 成功을 보앗다고 讚辭를 앗기지 안호려는 者이다。

첫재 古歌曲에 門外漢인筆者에게 그舞臺와 그唱者들의그演技는 歌曲의 詞說과 그場面의 迫眞味를 마출수잇게하엿든것이다 即料亭의溫突房가튼곳에서는 일즉이 朴錄珠、李東伯의 그노래도 몃번들어본일이잇고 또其他의名唱이라는 妓生의春香歌도 여러번들어엇섯스나 노래의音樂的表情도 그詞說도 別다를感興을 못주는것이 그밤의唱劇의場面은 確實히 노래의맛을주엇다는點으로 成功이라할것이다

노래의맛을 本來아는觀衆들이 그名唱의 노래에感心하엿다는點과는 類가달으다 이點에서 수番의 唱劇은 大衆的效果를 어들수잇섯든 上演이라고할수잇다

물재 唱者主役出演者들이 當代朝鮮歌曲界에서는 다시업는名唱의 總動員이잇슴으로 노래가 조와슬것은 다시말할것업고 全幕을 通하여 數個場面을 除하고서는 舞臺와 俳優와 劇內容에잇서서 從來의 어느新劇에서 보다도 못하지안흘 熱演되엿슴을 發見할수 잇섯다 새로운 手法으로된 舞臺에서 古典歌曲을唱하되 劇的演技에 自然스러운點이 觀衆의 마음을 사다

셋재 全舞臺를 通하여 몰때 劇으로서 조흐 不必要한 場面이 잇기도하엿고 어떤點은 大改良을하여 舞臺效果로서 特殊한 技術을 비롯이야할바 場面의 變化가 唱劇으로서成立할수잇섯다는點等

아프로 再上演의機會에는 十二分의 成功을어들것을믿는同時에 古典文學과 古典歌曲의現代的復活은 舞臺우에서 再出發되여야할것을 밋는바이다

◇

다음으로 唱劇春香傳을 評하에는 다음의注意가 잇서야할것이다

一、文學春香傳을 어느立場에서 解釋하여야할것이나

二、文學春香傳을 唱劇으로서上演함에 說話上 鄕土的傳統感(一)劇의同情이나 好意)을떠나 劇的要件을 살펴야하고 다시 한거름 나아가서는 唱劇으로서 西洋의歌劇的規範과 어느程度의 距能에서 觀衆에게興行的效果를 어들수잇는가 하는點을 比較的嚴格하살피야할것이다 그런데 그 첫條件에 對해서는 脚色과 演出者가잇스나 그力量이劇의 脚色과 演出에 어느程度인것인지 새로운文學的內容을 追求하기에는 힘들지 안흘가십고 또上演의 實際로 보아서도 文學的內容의 解讀的 또批評的態度는 찾기힘들엇다 東純히 歌曲의 唱演을中心으로 古談春香傳의 連續的素朴한一面만이 잇슬뿐이 아니엿든가한다 (계속)

★曆★ 十月三日(土) 陰八月小(十八日) 戊午·火·胃·收
●祭祀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米國의映畵事業
廿億弗投資
全世界의七十五%

米國의映畵事業界는 最近一般經濟界의 景氣回復에따러서 恐怖以來初有의 活況을보이고잇다映畵事業株는 一齊로 上昇하고輸出도 增加되엿는데 八月發表의商務省調査에依한 三六年度의米國映畵事業狀況은 다음과갓다

×

映畵製作에 投資된 資本總額은 約二十億弗이며 全世界의製作總資本額 二十六億五千萬弗에 比較하면 約七十五%를 米國이所有하고잇는셈이라한다 또한全米映畵常設館總數는 一萬五千三百七十八에 達하고 人口六千七百二十四人에 對하야 劇場하나式도라가며 座席數로보면 十一人에對하야 一席式으로 世界各國平均人口二萬七百十六人에對하야 一劇場의 比例에比하면 엄청난差異를 나타내고잇다

×

그다음으로 製作部門으로。살펴보면 映畵製作會社數는 百을 突破하고 年製作本數는劇映畵約五百 短篇映畵一千五百이고 이製作費는 約一億二千五百萬弗로그內에 六割四分이 人件費로되여잇다 一方 配給興行方面에잇서서의 映畵觀客數는 全米에서 一週當 約八萬人에 達하고 年入場料總額 七億五千萬弗 映畵館의 支拂하는 廣告宣傳費年二億五千五百萬弗 興行配給部門의 總投資額은 十六億弗이다 最後로 映畵事業에 對한 廣告費는 年一億弗로서 新聞雜誌의 廣告料는 七千七百萬弗 其他 米國映畵가 外國에 支拂하는 金額은 三千三百萬弗에 達하고잇다。

演藝消息

朝鮮聲樂研究會 劉忠烈傳上演

歌劇春香傳을 東洋劇場에서 上演하야 人氣를끌던 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一方으로 第二回公演의準備를 進行하고잇던바 요지음 準備가 完了되엿스므로 오는十月二日밤부터 二日間 往十里 光武劇場에서 連鎖劇//劉忠烈傳//을 上演하리라한다

하모니카콩쿨

本町一丁目에잇는 全朝鮮하모니카聯盟에서는 오는十月三日부터 京城公會堂에서 第二回全朝鮮하-모니카獨奏콩쿨大會를 開催한다는바 審査委員은 洪蘭坡 金坡園 吉澤實 宋一九 河野英吉 崔碧斗 宮村敏夫 鶴田廣 李悅鐵等諸氏라하며 賞品은 優勝컵이잇고 入賞者는 記念放送을하리라한다

거퍼지는가을따러
豪華舞臺의連續線
躍進하는朝鮮의劇界

朝鮮의 劇界는 거퍼지는 가을과함께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야 豪華版舞臺들의 連續線을 긋고잇다。

Y·W·C·A職業女性俱樂部의「[illegible]」의悲劇은 素人劇에잇서서의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얏고 朝鮮聲樂研究會의 第三會公演 歌劇 //春香傳//은 朝鮮에잇서서의 歌劇의 進路를 暗示하야 조흔成果를매젓스며 劇藝術研究會의五週年記念公演에 이도한春香傳의 盛況을어루엇고 古典劇이 上演되여 盛況을어루엇고 아今公演日字는 定치안헛스나 얼마전에組織된朝鮮演劇協會의 創立公演으로「모리-엘」의「守錢奴」로 脚本檢閱이 通過되여 지금 府龍町會館에서 練習에 晝、夜의 分開어 업다하니 그들의첫舞臺를 볼날도 멀지안헛다

(寫眞은聲硏「春香傳」의一幕)

"柊林"減食"教"
人氣와몸집反比例

柊林에서 映畵女俳優들이 호리호리하여지거 爲하야 十八日동안 야웨는 料理를 만드러먹는것이 流行하거는 지금으로부터 三年前의일이엿다 요사히는 女優들이 아니요 男俳優사이에 이。流行어應酬하게 되엿스니 男優들의「야웨이는減食週間」은 十八日間이 아니고 四日間으로되엿다 男子俳優들中에는 이야웨이는 敎의 信者가 相當히만흔데 敎主格으로는 곡코라-크·게-블이다 그는 四日間의 修道를 맛치고나서 四폰드半이나 體重이 減少되엿다하고 意氣하늘을 찌룰듯이 傳道에 餘念이업다

天下의 紳士들을 爲하야 저금그들의 奉仕하는「야웨이는敎」의 減食푸랜을 公開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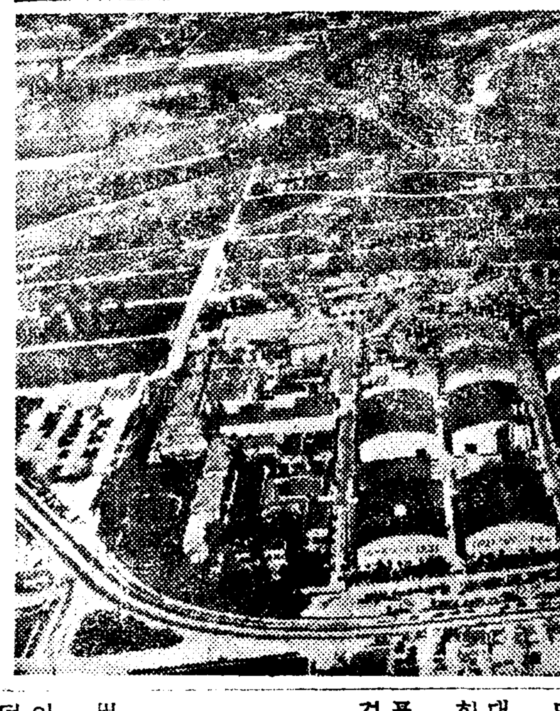
【第一日】─아침은 크다란「오렌지」一個와「블랙 珈琲」一杯만으로 足하다고 晝食은 羊肉의 조프 저녁은 기름기 적은 육랑회 소혜半라당分과「사라다」기름을 언친도마도와오이

【第二日】─아침은第一日과同一하며 晝食은 羊肉의 조프를 두접 도마도 두조각「그레-프·프룻쓰半分 저녁은 羊肉의조프두접 게란一個 시금치 그레-프·프룻쓰半分 뿔랙珈琲一杯

【第三日】─크다란「오렌지」一個는 第一日과갓고 아침이라할지라도 珈琲는 먹지말것 晝食은 계란두개를 개여먹고시금치에 소곰을조곰너흔것과젤 少量 저녁은「스튜」。렌더아로잉·스테-키도마도 두쪽「그레프·푸룻쓰半分 뿔랙珈琲一杯

【第四日】─아침은크다란「오렌지」一個에 珈琲는밧고 晝食은 닭고기구은것 반마리 시금치 저녁은羊肉의「조프」두접 도마도두조각

이리하야 第五日에는 平常時대로먹도 果汁을먹을수잇는대로만히먹도록한다 或톡통한 사람이라면 이減食푸랜대로試驗하야보는것도 조흘것이다 (寫眞은 柊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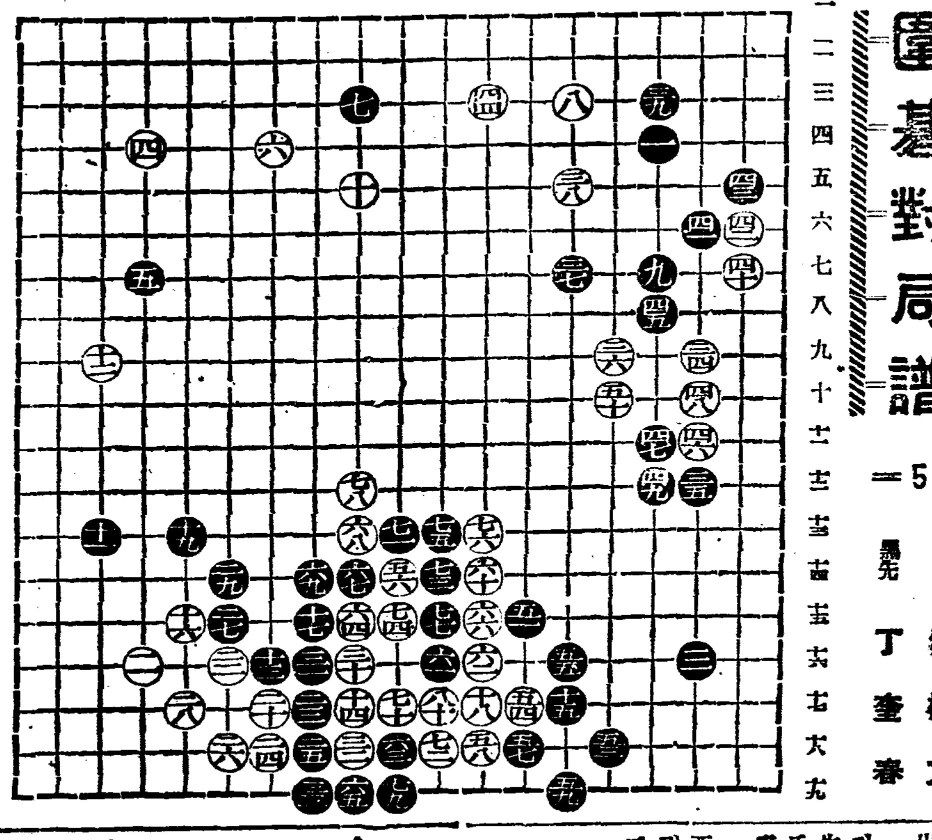
"女子홀로"

알타·라이分 第一回監督作品으로 파울라·꽤실리의主演。그리고「未完成交響楽」과「黃昏의納也納」의 슈릿드·젤느나가音樂監督을하얏다고。寫眞은同氏에 出演하는 꽤실리。그는「罪와罰」의 피엘·프란샤과떠부러 女優로서 最高의 演技賞을獲得하얏다고。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	六五	子의十九
○	六六	辛의十五
●	六七	子의十四
○	六八	子의十三
●	六九	丑의十四
○	七〇	癸의十七
●	七一	癸의十三
○	七二	壬의十八
●	七三	壬의十四
○	七四	癸의十五
●	七五	壬의十三
○	七六	辛의十三
●	七七	壬의十五
○	七八	子의十二
●	七九	癸의十九
○	八〇	壬의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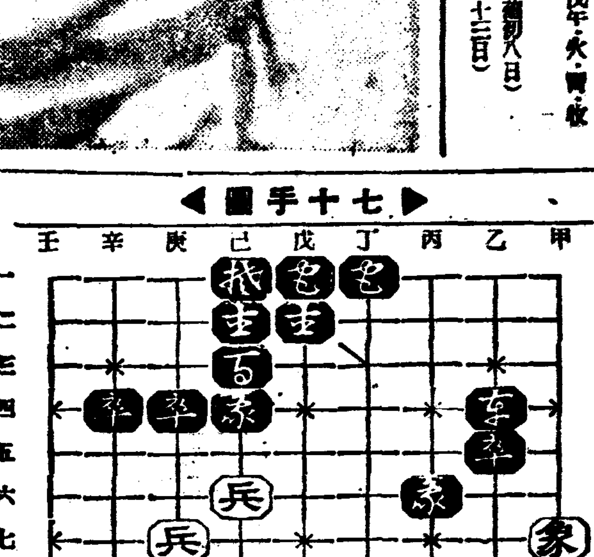
對局者談

黑이 白에게 捕捉心으로 頑促策을 試用함은 急擊勿失이란 法을 引用함이가 棋道에 正則은 아닌듯 白은 子의 十二로 延立하야 黑反取心을 釀成하나 來頭成果는 何如할지 未知孰是라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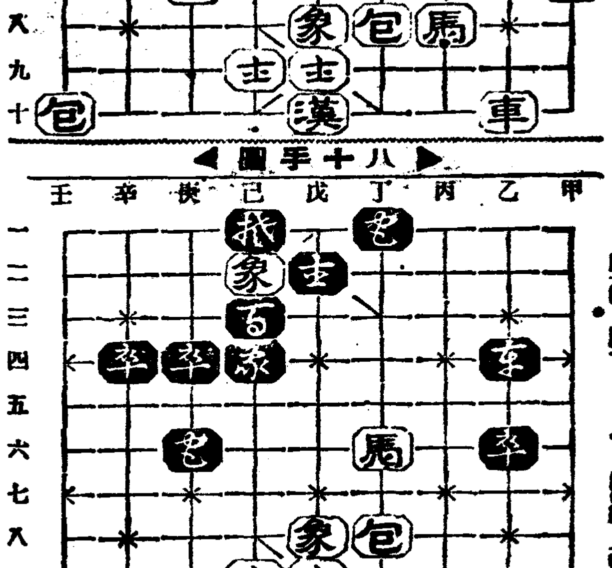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楚 金于石 漢 李在鳳

◀七十手圖▶



◀八十手圖▶



丙六包─戊三
丙八馬─丁六
乙五卒─乙六
甲七象─丙四
戊一包─庚一

庚七兵─庚六
戊六包─庚六打兵
己六兵─庚六打象
庚一包─庚六打兵
丙四象─己二打士

映畵界消息

世界的音樂家 映畵에出演

最近 英國映畵에 두사람의 世界的音樂家가 出演하게되엿다 한사람은 폴랜드의 初代大統領이며、國際聯盟創立의 功勞者이던 提琴家I·J·파데레프스키-氏로서 英國페르멜社에서 //베-토-벤//의「月光曲」映畵化에 主演하얏다 이것은 피氏의 處女出演이다

또한사람은 米國폭쓰社에서 석내生의 레너-歌手//쫀·마코-맥//氏로서 //로버-트社의 天然色映畵//아침의날개//에 主演하고잇다 더욱//아침의날개//에는 佛蘭西의//아나베라//와 米國의//헨리-·폰다//가 特別出演하리라한다

라듸오

二日 (金曜)

◇午後六時 童謠齊唱 一、꾀꼬리어라 二、넘비달룸 三、아야아가야 四、남남이 五、부쪽별님조별 六、쩡아쩡아고추쩡아 七、보슬눈 八、나이 九、별애기 西幡町主日學校兒童 伴奏 李慶煥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同七時三〇分 講演 라듸오와文化 李晶燮
◇同八時〇〇分 (東)獨唱과管絃樂 伊太利民謠式歌曲三曲、로씨키作曲外 獨唱 벨르라메리能子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瀟湘八景 二、唱劇調 春香歌中박석틔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九時 關山戎馬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긴아리 四、打鈴 五、朴淵瀑布 崔貞子 金秋月

第一放送

◇午後六時(札) 童話劇 札幌中央創成小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名) 英語講座 岡部次郎
◇同七時三〇分(東) 座談會 國立公園에對하야
◇同八時 서울춤 東券番옥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梅原秀夫
◇同九時一〇分(札) 追分節 鈴木實治外

三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하와이안기타-音樂 一、하와이안·러브 二、나는어때요 三、마히나·월쓰 四、우오아·리코레후아 五、호놀룰루·룰루·월쓰 六、켄터키·바-바큐 七、하와이의밤 하와이안기타- 張明浩 우쿨렐레 張鳳波
◇同一時一五分 主婦時間 榮養의實際問題「食慾과榮養」(二) 金浩植
◇同六時 어린이映畵이야기「사랑의天使」 成東鎬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朝鮮日報社 洪陽明
◇同七時三〇分 講演 //朝鮮의古歌謠에對하야// 崔文鎭
◇同八時 流行歌 一、바다의절문이 二、旅路人生 三、꿈에도故鄕生覺 四、불은울으다 五、바다의캐라반 六、달빗도외로워 七、산으로바다로 尹鍵榮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十分 首陽山歌外 一、首陽山歌 二、풋고초 三、달거리 崔蓮香 金泰運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水宮歌 淡風經 金練守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六) 丸山頤太郎
◇同十時三〇分 家庭講座 山下고스마
◇午後零時五分(九) 尺八獨奏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京城高工하모니카벤드
◇同九時三〇分 講演 陸軍大臣 寺內壽一
◇同七時五〇分 時事解說
◇同八時一〇分(東) 落語 三升家小勝
◇同八時三〇分(札) 陸軍大演習實況(第一日) 演習地서中繼
◇同九時(東) 義太夫 新義座

기침에 잘듯고 먹기좋은약

무서운 기침病의 류행기가왓습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감기 폐염 백일해 홍역을 미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도 가장 고통이심한백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 구미 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 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 어린애라도 잘벅게됨으로 떠욱 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곰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임니다

밧븐기침·천식

고령으로 전문가의림상처료에도 놀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 쓰는병도 초기에 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 사용하시면 경과를 열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을 다스리며 구토와 쇠약과 무서운병발증을 방지하고 밤잠을 잘자게 만들어 줌니다

조선은 기후와 토질의관계로 특히 밧븐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 염여가업시 잘듯고 잠을잘 주무시게만들어주며 속히 근치식혀준다고칭찬과 감사로 환영을 밧고잇습니다

백일해·홍역 밧븐기침·천식 인후염·만청담 기침·감기폐염으로인한기침에

기침을하거든 한숙갈…잠재일때에 한숙갈식먹이시면 곳 낫습니다

一五〇瓦 … 圓
三〇〇瓦 … 一圓六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TY-K-42

平南道의豫算膨脹 五百萬圓의巨額

平農移轉實現되면六十萬圓程度로增額

新規事業은期待難

【平壤】평안남도지방비 명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일 … 도는데 일조 예산은 금년보다이나 … 에편성에 착수하는데인데 절박 한예산으로 여유가 업기때문에 신규사업기타에 거대를 가저기 곤난하다 그런데 평양농업학교(平農校)가 이전된다면 예산은 삼 … 변의 사범선사업만 원보다 오 … 륙십만원의증가인 오백만원전후로될모양이다

一萬二千圓으로 學級增設

億岐公普期成會決議

【億岐】함남 영흥군 억기공보교(億岐公普校)에서 학급증설하려고 연장기성회 발기회를 개최하고 기성회준비에 분망중이라함은기보한바어니와 이제 해기성회를 수일전에 학교강당에서 개최하고 현면장박창헌(朴昌憲)씨사회하에 제반사항을 토의하엿다는바 총공사비는 일만이천원을예산하고 조달방법은 지방유력자제씨로부터 특별기부금을 밧기로하엿는데 대회당일에 김형락(金衡洛)씨의 팔백원기부가 잇섯스며 당일에 피선되상무위원은 아래와갓다

委員長 金衡洛 副委員長 朴昌憲 黃芝洙 常務委員 庶務部 … 無輔 裵容欽 朴東奎 尹喜晃 李載鴻 張相弼 裵賦龜 朴東健 金泰勳 裵時喆 趙炳相 會計 鄭睿錫 許奎 崔鶴律 裵東洙 張錫浩 劉麗鍾 … 森 下校長 田口直庵 朴昌憲 李 … 顧問 …

車輪會主催로 市民慰安音樂

【新京】신경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인 자동차 종사원(自動車從業員)으로 조직된 신경차륜회(新京車輪會)에서는 그의창립을 긔념키위하여 금번동회의첫사업으로 시민위안 음악대회를 오는 오일 오후칠시반부터 시내 넘공회당(新京公會堂)에서 개최하게되는바 조선에서 다년간에 활약하든 음악가 수인과 시내에 거주하는 신진 남녀음악가 수십명이나 총출연하려라는데 지금부터 그날의 대성황을 예기하고 잇다한다

三十餘群衆作黨 進行列車에投石

咸興驛서五키로되는地點에서

洞里不良青年所爲?

【咸興】어성일일오후 여덟시십오분 함흥역을 떠난 남행렬차와 동오십오분함흥역발북행렬차가 함흥역으로부터 약오키로가량되는 호련천(瑚璉川)철교부근에 다다렀슬때 이십명의군중이 모여섯다가 별안간 렬차를향하야 일제히 돌을 던저 객차의유리(硝子)를만히부서버려스다는대 이급보를밧고함흥서에서는 즉시사전(寺田)사법주임이하 칠명이현장에 출동하야 범인을 수사하엿섯는대 필경동리불량소년들의 작란으로 추측된다고한다

宣川人士同情熱 아이어른總動員

赤樂幼園에서 現金과衣類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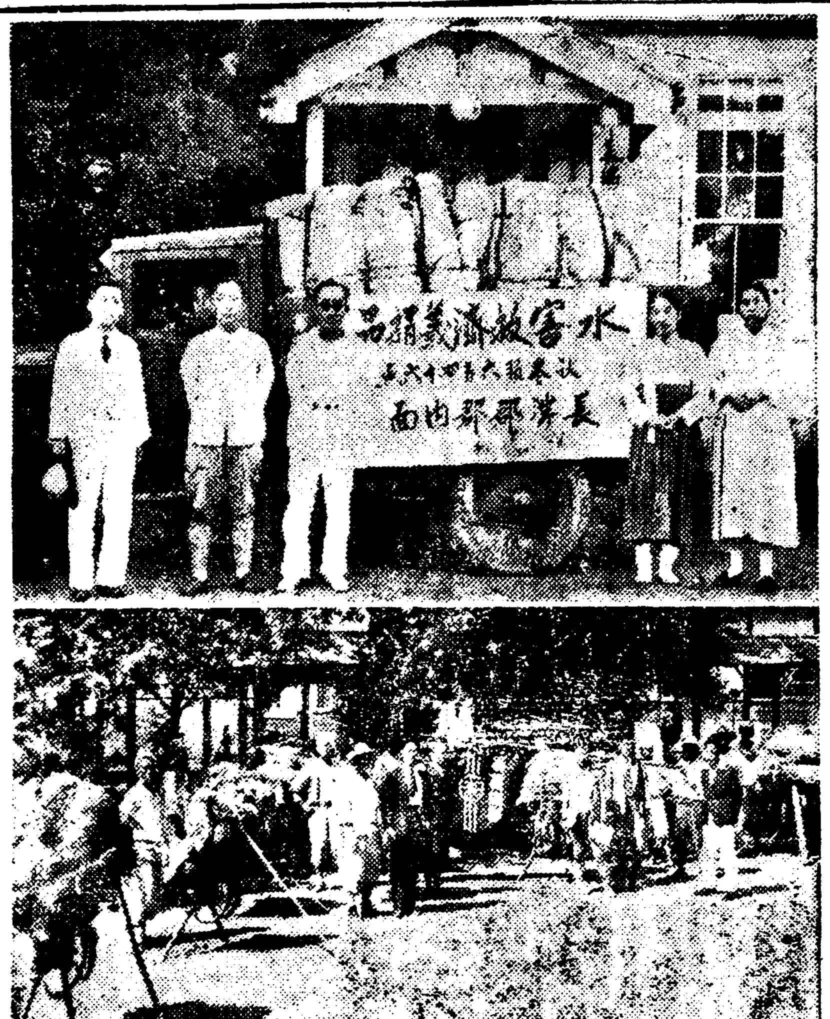
【宣川】동신(童心)에서 동심으로 옴겨가는 눈물어린 따뜻한 동정심! 수만으로 헤이는 재지의 어린동무들에게 다못한줌의쌀 한벌의옷이나마 던저 그들의굼주린배 그들의얼은몸에 한줄기생기를 주려는 귀여운 마음의 발로!

선천읍 역락(赤樂)유치원에서는 원아일동의 어린마음 어린손에서 던지여저 푼푼이 모인돈 십팔원여와 자긔네들만이 입든 조고만의복 십수점을 몸소 어린몸에 지니고 선생세분의 인도를바더 본보지국에차저와 전달를 부탁하엿다

宣川會館學生 現金과書籍을

職員一同十一圓五十錢 園兒一同六圓九十二錢 衣類十九點

【宣川】점차로 고조되는 동족애는 인제바야흐로 재지로총집중하고잇다 더말할수업는 처참한 가운대 …



◇……水災同情畵報 (上) 長湍婦女團體에서蒐集한同情衣類千餘點을災地로發하는光景(長湍) (下)本報經由救濟品二千餘點을咸陽郡內各災地에發送하는光景(安義)

保聖學校서도 現金二十圓을

一、金五圓 宣川會館職員一同 所生徒一同
一、金三圓二十錢 宣川中學會
一、金三圓五錢 宣川商業實修學校校友會 …十四點

【宣川】 … 쳔번으로 … 매어며 … 오늘의 … 형편의 옷이업서서 떠는이재동포를위하야 각처에서 가비여운주머니를 기우려 동정함은 매일보도되는바와 갓거니와 금번선천 보성녀학교(保聖女學校)에서도 직원일동과 학생들의 벽지동포들의 … 정하는 순정의마음으로 푼푼히 모은돈! … 여십원을 거두어 재 … 본보선천지국에 차저와 재 … 지에 보내달라고 본지국에의뢰하여 왓슴으로 본지국에서는곳 본사로송금하엿다

分分히모흔돈 七圓金을依託

【宣川】지극히 어려운 자긔의 형편을 돌아보지안코 한푼이면 한푼 두푼이면 두푼이라도 나아보지안코 … 원을 재지동포들에게 … 것이 진정한동포애의 … 이다 금번 삼남의 재변의참상을 … 에 누구라서 동정의 눈물을 … 리지안흐랴? 선천군 태산면 … 성동(台山面 …)교회에서는 … 진흥회에서 … 그네들의 … 아보지안코 … 원을 재지동포들에게 보내 …

鐵城塔消教會 衣類四十一件

… 씨가 가 … 지고 본지국을차저와서 … 하여 …

衣服四千餘點에 現金七百餘圓

平壤社會文字그대로總動員

平壤支局寄託金品

【平壤】홍수해로 의식주를 일허버리고 적수공권으로 단처오는 처위에 떨고잇는 삼남리재동포를 구제하자고 궤처에서 본사 평양지국에서는 그동안 각교회 학교 공장 그리고 각종각개에서 긔탁해보내는 구제금품은 오로지 감격과 눈물로 바다 재지에 발송하엿는데 삼십일까지 본사지국에 도착된 눈물의 구제품동포애의 결정품은 대략다음과 가타서 의복 사천사백이십팔건 현금칠백사십구원실십오전 … 다수에 달햇스므로 안동(安東) … 금천(金泉)에 발송햇다. 이제 제오회로 칠판된 부분은 다음과가트며 어나것이 눈물의 동정이 안일수업서 오로지 감격한마듸로 갓칠뿐이다 압호로 더보내라。

◇救濟金品寄託者芳名 (第五回分)

▲西城里 蒼光主日學校 一圓五十錢 ▲將別里 洪樂英夫人 衣服十四點 ▲ … 大人衣服百十一點及現金十四圓 ▲ … 十六圓五十錢 ▲ 倉田里 … 會 一圓 … ▲ 平壤聖 … 會 衣服四十點 ▲ … 衣服百十一點 ▲ … 點과 現金十圓 ▲ … 敎會 衣服二百十二點 ▲ 西城里平安高等工業社 小兒高等普通學校 … ▲ 南山峴敎會 … 男女高普 … 二百五足 ▲ 崇實專門學校六十七圓十三錢 ▲ 平壤…路 … 株式會社文明商會 … 理敎會衣服六點及現金六圓七十五錢 ▲ 大同 … 衣服百二十點及 現金四圓 ▲ 西城里 … 五圓 … 無工業社 … 十五圓七 … 十五錢 ▲ 江西 … 衣服 … ▲ 平川里 … 員一同 五圓六十錢 ▲ … 員一同 衣服八十二點及 現金二十圓 … ▲ … 十一錢 ▲ … 百五十三點과 … ▲ … 十二點 ▲ … 十五錢 … 共和製藥所 … 十打及 … 十五足 … 幼稚園衣服五點과現金九圓四十一錢 … 敎會衣服百十點

朝紡職工二千名 分錢모흔百餘圓

本社釜山支局에寄託

【釜山】참담한 수재의 소식이 부내범일정(凡一町)에잇는 조선방직회사 삼천여명의 남녀직공에게 전하게되자 너도나도 자진하야 주림에우는동포를 살리자는 갸륵한 동정심의 발로로 하로에 불과몃십전에 지나지안는 근소한임금중에서 각각출금하야 이천여명이 푼푼히모인돈일백이십사원륙십삼전을 지난삼십일 오전십일시반에 직공대표로 리두홍(李斗洪) 리일제(李一濟)량군이 가지고 본보부산지국을 방문하고 동정의눈물과함께『귀사를통하야 리재동포에게 전달하는동시에 우리방적직공이천여명의동정을 전하여달라』는 간곡한 위문사로서 전달을의뢰하엿다 본보부산지국에서는 곳 …

사에대하야송금의수속을취하엿다

◇寫眞은 同情金을가지고 釜山支局을訪問한 朝紡職工代表

朝紡炊事部員도 分錢모아二圓

이외에 전긔조선방직회사 취사부(炊事部) 직공일동으로부터 이원오전의 긔탁이잇섯다

天道敎宗理院도 一同이義捐寄託

지난이십오일 부내 초량정(草梁町)박찬표(朴贊杓)씨로 부터 천도교종리원일동을 대표하야 수재의연금 일원사십전의 긔탁이 잇섯다

滿浦線各工事場 人夫不足의苦悶

三南人夫歸鄕續出로

【平壤】소화십삼삼년도로서 공사를완료하고 전선의개통을보게될 만포진선은 목하예의공사를 진행중인데 최근에는 인부부족으로 각공구에서 큰고통을밧고잇다 원래 이공사에 사용되고잇는 로동자들은 삼남리재민이 대부분이든바 경부선(京釜線)을 수선하는데 인부부족을고한다는소식을드른 삼남출신 로동자들이 철도공사를 할바이면 고향갓가운곳에서 한다고 추석전후하여 고향에 향하는로동자가 격증하고잇서 철도당국에서는 대책에 머리를 앓고잇다한다

간을 거듭함을따라 긔계화함은필연적사실인동시에 이방면에 종사하는 업자들은 그장래를 크게 기대함과 한가지로 산업강화에 잇서서 압호로의 활긔는 말할것도 업슬뿐만아니라 과연가내수공업으로만 내려오던 려사는 이로 인하야 그압길이망연함을 금치못한다고 한다

筆記帳百冊寄託

【新高山】경원선 고산역전에잇는 구세군신고산영(救世軍新高山營)유년주일학교의 어린학동들은 필긔장백책을 모집하여가지고 본보신고산지국에 가지고왓슴으로 즉시재지학생들에게 분배하여달라고 본사에 보내엿다고한다

朝陽紡織에서 織物試織着手

【江華】산업의강화 직물왕국을 형성하고 잇는오늘 다시금 큰서광을 벗치웟스니 그는 강화에 유일한재벌 홍재묵(洪在默)씨가 오십만원이란 자본을 던저가지고 조양방직(朝陽紡織)회사를 조직하는한편 오래전부터 일본내지로부터 이방면의긔사를 초빙하야 공장을 건축하는등 준비에분망하던바 큰큰 오백여평의 현대식공장과 직공숙사 휴게소며 이백수십평의 사옥을락성하야 지난구월일일부터 원료품만을 구입판매하는바 오는시월중에는 직물의시직에 착수하라고 방금전조선을 통하야 직공모집을 하고잇다는바 이로인하야 종래가내수공업만에 불과하든것이시

十二萬農民關係의 東津江改修問題 (一)

穀倉金萬平野를貫通 鳳山幽谷雲岩江을連接

新泰仁支局 金容稷

碧骨堤를 中心으로한 金萬平野와 江山 龍山狀를 中心으로한梨坪 新泰仁 白山平野部의沃野千里는 名實相符의 朝鮮의重要農産地요 湖南의 心臟인과穀倉이라는것을 古今을通해서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다

筆者는 朝鮮은 農業朝鮮이란 것이 四海에 指稱되과 農業朝鮮의名聲이 高高되고 光輝가燦 爛해저가는 貴價의要素가 恒常 金萬梨坪 新泰仁 白山等大平野에잇슴을 認識하면서 또한異名同地의 東津江沿岸大平野에 잇슴을 再認識한다

以上數個의 大平野를 要約해서 一般이 呼稱하기를 東津平野라하는데 東津平野란 名義를所持하게된 要因은 黃海의 支流東津江이 一望無際의 沃野千里를 貫通함에 잇다고한다

筆者는 東津江沿岸의 被害한水害가 생길때마다 念頭에 떠나지안코 凹옥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周圍의 大略만을 들어 現在한 東津江沿岸 十二萬二千農民의 死活問題를 記載하고자 한다

東津江은 本流를黃海에두고 支流의一幹은 金堤郡竹山面과月村面을 貫通해서 金堤邑에 細脈이通連하고 또一幹은 扶安郡白山面金板里와 元川里를 通過하야 井邑郡梨坪面 新泰仁面 淨雨面 泰仁面 七寶面 山外面 山內面을 貫通해서 現在東津水利組合貯水池인 任實郡雲岩江과의 細脈이連接햇다 上述한바를 다시換言하면 金堤邑을 臨過하는 東津江의 一幹線支流는 碧骨堤中心의 金萬平野를 貫通햇고 扶安郡 白山面金板里 元川里 梨坪面 新泰仁面 淨雨面 泰仁面 七寶面 山外面 山內面을 貫通해서 任實郡雲岩江을 連接하는 東津江又一幹線支流는 江山 龍山 狀中心의梨坪 白山 新泰仁等大平野를 貫通햇다

扶安東津江氾濫에 依한被害地域即同沿岸의 各郡各邑面里戶數人口 畓 田의面積을들면如左하다

◇金堤郡

金堤邑 戶數一、二四八 人口七、三三六 畓八、〇八四 田三、三九五
關係洞里(九)

校洞	玉山	新谷	葛公	龍洞	
新豊	劍山	白鶴	專洞		
月村面	戶數一、一五六	人口五、四八二	畓一一、八二〇	田一、三一九	
關係洞里(八)					
長華	新德	月鳳	新月	堤月	
蓮井	明德	福竹			
竹山面	戶數七六四	人口四、一四九	畓一二、四六九	田三、三六	
關係洞里(四)					
大倉	竹山	連浦	新興		
扶梁面	戶數一、〇一〇	人口四、七〇五	畓一六、八九六	田七五五	
關係洞里(七)					
大坪	月昇	新館	新用	龍成	
金江	玉亭				
下雕面	戶數一、五三二	人口七、七二八	畓一六、六四七	田三、〇六六	
關係洞里(一〇)					
大松	平沙	龍山	花峰	新湖	
郡莊	西亭	良田	月成	梧井	
聖吹面	戶數一、一九七	人口五、九七六	畓一一、九一九	田三、四九二	

◇井邑郡

梨坪面	戶數一、六八五	人口八、八一八	畓一二、三三三	田四、九〇五
關係洞里(一〇)				
馬項、斗田、下松、八仙、新福				
平嶺、長內、青良、道洞、道溪				
德川面	戶數一、〇八八	人口五、七八八	畓八、八五〇	田一、六五七
關係洞里(四)				
達川、新月、優德、望帝				
雨順面	戶數一、二七六	人口六、五〇一	畓九、一四二	田四、二三三
關係洞里(六)				
楚江、鶴山、雨日、南山、花海				
淨土面	戶數一、〇七三	人口五		
關係洞里(九)				
雙吹、南山、玉成、眞興、龍馬				
鴻亭、鳳月、卵鳳、鳳山				
草處面	戶數八一六	人口四、三〇五	畓八、四七八	田一、一五七
關係洞里(七)				
九井、幸村、德鶴、回城、龍新				
新應、內光				
新泰仁面	戶數一、七〇〇	人口一、四五一	畓一一、二二〇	田五、四九一
關係洞里(六)				
花川、回龍、大寺、山北、水金				
梧琴				
四五二	畓一一、四五四	田六、二〇六		
關係洞里(八)				
九石、新泰仁、牛嶺、新德、陽槐、淸泉、新龍、禾湖				
甘谷面	戶數一、八九二	人口九、八七三	畓一七、五七九	田七、二六四
關係洞里(十一)				
三坪、儒丁、龍郊、芳橋、勝芳				
五舟、長峰、大新、眞興、通石				
杜龍				
泰仁面	戶數一、八二八	人口九、〇七八	畓一一、一八七	田四、二五二
關係洞里(一〇)				
栢山、弓四、洛陽、五峰、朴山				
泰昌、泰成、居山				
雙林面	戶數八四二	人口四、八三	畓八、三二五	田一、三九一
關係洞里(五)				
泰西、泰南、梅溪、五柳、馬亭				
瓮東面	戶數一、二六三	人口六、四一四	畓八、五二七	田八五三
關係洞里(三)				
山城	梅井	飛鳳		
七寶面	戶數一、四八六	人口七、四一七	畓七、五四七	田六五三
關係洞里(三)				
槇峴	白岩	武城	臥牛	詩山
山外面	戶數一、四八四	人口七、六六八	畓五、五二七	田六八七
關係洞里(四)				
五公	東谷	貞良	平沙	

◇扶安郡

白山面	戶數一、五五五	人口七、七七五	畓二五、五一一	田三〇〇五
關係洞里(五)				
大水	元川	龍溪	金板	巨龍
合計				
郡數三	邑面數一九	里數一三		
一戶數二五、八九五	人口一三三、九〇三	畓二二四、三二一	田五六、一一四	(續)

市場位置爭奪로 百餘婦女가騷動

一般은當局處事를注目

【草黃】초계면면민들의 다년숙망이든 당지시장 정리설이 금번사업에 면당국으로부터 엇게되자 시민들은 중(中) 동(東)량파로 갈려 위치경쟁전이 전개되여 중앙파는 중앙에치려드리지라 주장하고 동부파는 동부촌하단 촉아하리(…)아파 최적당자리라고 주장하게되여 그간약 오개월을 경과하도록 서장위치를 결정치못하고 량파가대립되여 서로싸홈을 다토아 군도당국에 구두로 서면으로 진정을하고 관계당국의 처사를 주목하고 잇든중 지난 십칠일에도청원 문정창(文定昌)씨가 초계산업조한 일반문서 검사차로 온것을 긔회로 중동량파부녀륙십여명이 면소에가서 문정창씨를 방문하고 각파가 서로 의견을 구두로 진정하엿다 한다

東興歡迎蹴球 六對一로東興勝

【元山】원산축구단주최의 본사원산지국후원의 동흥중학축구단환영축구전은 저난이십구일오후 열두시부터 시내 마명보통학교운동장에서 박인손(朴仁孫)씨심판으로 열렷는데 동흥군원래(遠征)의맹렬한공세를 취함에 원산군 아예선방하얏스나 실력의차는 엇지할수업섯슴이지 원산군 륙대이(六對一)로 패전하니 동흥군 우승의 영관을취하야 축구동흥의강력을 여실히 나타내엿다。

本社經由慰問品 白米、衣類二千點 咸陽郡各災地에配給

【安義】동포의 열렬한 동정으로 본사를 경유하야 보내온 의복과 양식은 구호반는 수천의 함양군 이재민으로 하여금 떨거운 검사의 눈물을 흘리게하엿다 본보안의지국은 군수리문하(李汶河)씨의 격렬한 성원을 바타 군당국과 협력하야 지난삼십일 군내 리재당한 각면으로 위문품을 발송배급한바 면별의 발송건수는 아래와갓다

馬川面	白米一叺	衣服四〇〇點	
休川面	白米一叺	衣服三〇〇點	
柳林面	白米一叺	衣服三〇〇點	
水東面	白米一叺	衣服三〇〇點	
安義面		衣服三〇〇點	
鹿下面		衣服二五〇點	

平壤府秋季種痘

【平壤】평양부금년도 추긔종두(秋期種痘)는 오일부터 이십삼일까지 다음과가튼일할과 장소에서 시행하기로되엿다 요종두자는 출생부터 일년이내 해이는나하로 여섯살 열두살되아해 종두햇스나 불선감된자 변경여하를불구하고 정긔종두를바타야되고 안는자는 전부 종두를바타야되다고한다

◇秋季種痘日割과場所
▲五日若松普校▲六日公會堂▲七日키네마▲八日南山普校▲九日秋林普校▲十日鍾路普校▲十二日上需普校▲十三日明倫普校▲十五日西城普校▲十六日同上▲十九日箕林普校▲二十日大同警察署▲二十二日船橋小校▲二十三日同上

競技에바든賞을 水災民에同情

【道臣】평북조악에서도 년중행사로 추석가절을 리용하야 삽 …

長湍婦女團體蹶起 救濟品을募集

衣類千餘點災地發送

【長湍】금번풍수해로인하야 말할수업는 참상을 당하고잇는남조선과 령동지방의 리재동포를에게 만흔관심을 가지고잇는장단고랑포(長湍高浪浦) 부인회에서는 회장조중숙(趙重淑)여사이하 회원제씨의 활동으로 의복 삼백여점을 모집하야 재해지로 발송하엿고 또장단읍내에서는노영애(盧英愛)여사와 유지원보모 김영신(金永信)씨와 교회내김용언(金容言)씨의 활동으로 의복 륙백사십륙점을 모집하야 재해동포에게 각각발송하엿다고한다

赤誠의同情金

吳城普口普校生

【吳口】영구보통학교의 순진한 어린생도일동은 남조선홍수의 참담한 처상에 동정하여 금식일원 십이전을 본보영구지국에 가지고와서 어것은 약소하나마 우리 나오 라어린이들의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금이니 본사를통하여 삼남리재민에게 보내달라고 긔탁하엿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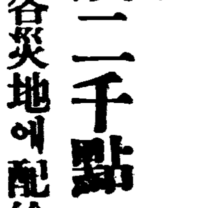
三湖 經濟大講演會

▲時日 十月九日午後三時
▲場所 三湖公普講堂
▲演題 通貨膨脹의動向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主催 朝鮮日報社三湖支局

扶餘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十月四日午前九時
▲場所 扶餘公普校庭
◇主催 扶餘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支局

성양업소(三成燐寸所)에서 순균(洵均)동업하여엿는데 그우(於)한상으로바 그녀마리손을 지난구월하순에 돈 찰기마나한을 산업수해애를 거행하엿연바 조의상선광업소종 고잇는동포들에게 보내여달라고 업자 차경록(車京祿)(六)군이원 본보조악지국에 긔탁하엿다



愛慾의彼岸 【116】

李光洙 作
金康發 畫

『헤련아!』
강은 또 한번 불럿다。
『네?』
헤련은 얼굴을 들엇다。눈은 … 다。육체가 반드시 죄악이아니라 하더라도 영혼은 육체보다 노픈것이어든。우리는 육체의 생활을 초월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나는 헤련의 영혼을 사랑하야다。그야 헤련의 눈이나입이다 음성이 다 헤련의 영혼의 표현이지마는。그래도 어째 원동한 주지텀이 기다리는 모양으로。『우리는 영혼을 위하야서 육체를 이기지아니하면 아니 된 … 』

『저는 임선생을 조경합니다』
헤련은 이 말을 하고는 또 한번 준상의 눈을 보고 고개를 숙엿다。헤련의가슴 속에는 일종의 슬픔이생겻다。울고십흔 듯함을 느끼엇다。
『조경이라는 말슴은 제게는 당치도아니합니다。헤려 녀여도 첫터다。좀더 따뜻한 말슴은 업슴니까。』벌써 떨리는 이 몸을 녹혀주실만한 그러한 말슴을 업스십니까、네?』
하는 준상의 긔상은 흥분하고 가탓다。준상은 말을 이어、
『제가 어젯밤에 어디서 잔줄 아십니까。용마소에서 잣노라고 그리고 식전일족 떠나왓노라고 헤렴니다마는、기실은——기실은 헤련씨 창밋테서 새왓슴니다。일생에——제 일생에 어제밤처럼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밤은 처음이지요。헤련씨를 생각하고 서리친 새벽에 떨고 섯는게 일생에 두 번 잇슬 일이아요? 새벽 하늘 별시빛은 유난히 빗나요』
하고 그때 일을 회상하는드시 하늘을 바라본다。

『안 미워하십니까? 정말 저를 안 미워하십니까』
하고 준상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선다。
헤련도 압길을 막혀서 우둑 서며 이상하게 빗나는 준상의 눈을 바라보앗다。
이나고 가슴이 들먹거렷다。준상의 눈에서는 갑작이 빗

『그래 보셧서요? 해뜨는것을 퍽 조와하시나 보서요』
『구름이 겨서 못 보앗서요』
준상이 압서고 헤련은 뒤를 따라서 것기를 시작한다。
『구름이 만하요』
『네에。아주 꽉 겨서 한걸음 아플 볼수업더니 금방 맑아버렷서요』
『헤련씨가 저를 미워하시는 마음도 비로봉 구름처럼 거더주섯스면』
하고 준상은 헤련을 돌아보며 웃는다。
『아이 제가 미워하기는요』
하고 헤련은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 장노님은 야단이십니다 아거、원 어듸를 갓단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치자 떠낫지요』
『해뜨는것 보러 갓섯서요』
헤련은 벙그레 웃엇다。
『어듸를 가셧서요、식전에?』
하는 소리가 들렷다。그것은 준상이엿다。

헤련이자 걸시바다땜 보고 걸어갈때에 문득、
헤련이것 자러 보엿다。
로운인것 … 에서 추한것으로 변해버린것가 특갓다。바위나 흙이나 나무나 꼬치 … 잡갓다 … 에서 변상을해서 아름다운것을 … 세 결웃엇다。깃피도 벽 … 다고 … 그다 … 헤련은 잠깐 숨을 테어서다。눈에 … 떨어저나려오는것 가탓다。는 올라갈수업는 노픈하늘에서 떨어저 나려온듯 … 업마 것더가 뒤를 돌아볼 때에 다。다만지금 나려온 칙칙대가 마치 하늘에 다은 야곱의 사다리모양으로 보일뿐이엇다。여 평정 노피에서 갑자기 떨어 … 리고는 뒤도 안돌아보고 어망을 향하고 떠나듯이 나려갓다。
헤련은 … 세존드시 압을 … 마중나 계심니다』
『안녕히 가세요。저도 오늘 장안사로 가겟서요。… 』
헤련은 더 못들 말을 … 』
하고 준상은 … 어이로 가시게요』
『정말 가세요』
하고 준상은 … 어이 … 가시게요』
… 어、헤련은 평 … 할 … 를 … 하고 …
『저 헤련이 어 … 떠나 … 어고 하되이나 … 고 … 다가 … 그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야쓰겟나。아니 우리는 그 … 』

朝鮮米一回豫想 一千九百萬石臺?

凶作에不拘코驚異的數字일듯

三日正午에發表

今年부터 指導員二百二十名에 調査員一萬九千餘名을 動員하야 新規米穀生産高調査에依한 去九月二十日現在의 第一回收穫高豫想調査는 三十日까지에 各道의 電報報告가 集合되여 一日午前中에는 大略集計까지되엇스나 總督이不在中임으로 三日午前中 總督決裁를 밧는대로 公表發表키로되엿다 今般의調査는 工方式과 規範이從前보다는 大端히細密함으로 收穫豫想高도從前보다는增大하리라고 觀測되여왓스나 數字는 意外에도 三千萬石에 接近하는 一千九百數十萬石이라는 驚異의數字를 示現케되리모양이다 朝鮮米의 最高收穫高는 昭和五年에 一千九百十八萬石이엇고 그다음은 昭和八年에 一千六百十九萬石, 昨十年은 一千七百八十萬石이엇든것으로보아 今年의 豫想은 從來의 記錄을全혀 無視한 新記錄을 나타내인모양이다 그런데 今年은 旱害와 風水害에 繼하야 稻熱病까지 發生하야 大略一割五分에 갓가운 減收가잇스리라고하는 이만큼데 今年이 一千九百數十萬石을하고보고 平年作으로總算하면 一千二百數十萬石에 達하게된다 이數字에 對하야 多少間 그根據를 찻는다면 從來反當收穫이 一石을超過한것이 昭和五年의 一石一斗五升이잇고 그外는 同二年、八年、十年에 各히 一石數升에 達하엿슬뿐인바 技術官들이 强調하는것은 十數年間 本格的으로 施肥와土地改良其他의 農事改良을 해온바로 보아反當一石數斗에 達함이當然할것이다 그間그增加率이 隱히遲滯하엿다는것이다 今年[illegible]은 [illegible]一平年作을 一千三百餘萬石이라고하면 作付面積 百五十萬餘町步로보고 反當一石四斗餘가될수잇스나 今年의第一回豫想이 一割數分의減收를 豫想하고도 千九百數十萬石에 達한다고해도 큰無理가업스리라는見解에 到達하는모양이다 도反當收穫에잇서서 優良好한곳은 五石되는곳도잇고 三石以上 되는곳도 三南地方은 만하서 作付面積의三、四割은 占하다고하야 [illegible]驚異的數字가 合理化될모양인데 이러한 空前의收穫豫想高에 米界에는 一大衝擊이 잇슬것이 豫想되고잇다

日本內地의 米收穫豫想

六千五百萬石內外?

【東京電話同盟】農林省第一次發表=今年의 米作은 反別及 九月二十日現在의 豫想收穫高岩手外十二地方分은 一千七百二十三萬四千石으로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一百九十萬四千石이 增加되엇는데 그比例로 想像推算하건대 六千五百萬石內外가되어 市場의 人氣그대로서 그다지 市勢의 騰落材料는 되지안는다 但右豫想 調査以後 天候가 比較的 不良하엿스므로 第二回豫想은 [illegible]

米輸移出高 九百萬石突破

朝鮮米輸移出은 九月中에 四十七萬四千石으로 前年의 十五萬八千石에 對하야 三十萬石의 激增을 示하야 累計輸移出은 九百十一萬七千石으로 마츰내 九百萬石을 突破하고 前年에 比較하면 六十五萬五千石의 激增인데 今年의 輸移出量은 過去의 最高記錄인 昭和九年의 九百五十萬石을 實히 凌駕할것이 豫想되게되다 總督府調査에 依하면 九月中의 米、粟輸移出入狀況은如左하다

▲米輸移出高 (單位石)

	今年	前年
九月中	四七四、一六八	一五八、三二五
十一月以降累計	九、一一七、五三一	八、四六二、三二五

▲米輸移入高 (單位石)

	今年	前年
九月中	三四、七〇六	六二、八五一
十一月以降累計	一三六、九二六	一六四、四〇七

▲粟輸移入高 (單位石)

朝鮮米滿洲向 輸出大減退!

朝鮮米의 對外輸出은 前年度十五萬石에 達하야 主로 滿洲輸出이잇서 그販路開拓은 期待되고잇섯는데 滿洲의 米穀生産激增에 蘇米輸入 軍用米手當의方法變化로 今年에 들어서는 全혀 半減狀態가되어 九月米만으로보면 前年에는 十四萬一千八百石의輸出量이 잇섯는데不拘하고 今年度全혀 半減以下가되어 五萬一千五百石餘에 不過하야 僅僅前年의 三割七分을 示하는狀態가되여잇다 그러나 在滿日本人의 激增傾向과 中國米의 關稅引上은 期待할수업시 將來에는 輸出復活의 希望이잇다

精米工業統制

特殊組合令公布를要望

移出白米工業組合도組織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압서 會員間에서 研究中인 朝鮮內精米工業의 統制强化策이 同調査委員會로부터 正式으로 强化實現을 要望해왓스므로 役員會를 開催하여 協議한結果 聯合會에서도그必要를 認定하고 同委員會案을 採用하고 이實行方法으로現行工業組合令外의 特殊統制組合令의 發令을 總督府에 要望하고 右新統制法令을 기다려 朝鮮移出白米工業組合을 現鎭檢支所在地區域單位로組織하야 京城에 이 中央聯合會를 設置하고 六組合과의 連絡指導의 任에當하기로하고 同工業의確立을 圖하기로되어 一兩日中에 當局에 陳情하기로되엿다

大阪穀商組合에서 朝鮮米逐出斷行

【大阪電話同盟】大阪正米市場에서 壓倒的販賣權을가진 朝鮮米의 販賣統制에 關해서는 이미 大阪穀物商統制組合이 中心이되여 朝鮮總督府 同地穀物聯合會에對하야 屢次 陳情을 거듭하고잇는바 最近 統制의 名目으로 朝鮮米業者의 日本內地市場獨占에對抗하야 拍車를 加하야 直賣所設置까지 企圖하게 되엇스므로 大阪穀物商統制組合에서는 敢然히 起立하야 朝鮮米의 市場逐出을 斷行할 決意를하고 同組合의 最後的決議로 三十키로 袋入朝鮮米(國白)의 보이코트를 一日 大阪府商工課에 屆出하고 [illegible]되것이라한다

朝鮮米業者의 挑戰에 應酬하게되엇다 右와如히 大阪業者가 朝鮮米의 販賣統制를 要求하게된것은 最近 一個年의 大阪의朝鮮米消費高는 二百七十萬石으로 日本內地米의 百十萬石을 훨신凌駕하야 日本內地市場을 壓食하는中이며 三十키로 袋入은朝鮮에서는 朝鮮米全消費量의 約六割을 占하는데다가 販賣利益이 第一 適하고 商標不統一때문에 品質檢査를 行하는데도包裝袋가 自體銓 그대로 移入되기때문에 內容檢査가 全혀 不可能한 事情에 依하는것이므로 組合에서는 자못 自衛的態度로서 今日에 至하얏는데 朝鮮業者는 何等의 反省이 업슬뿐外라 直賣所設置까지 企圖하게되엿스므로 斷然 이와가티 하기로되엿다

林財務局長 朝銀入行確定?

總督府林財務局長辭任은 同氏가正式으로 辭表를 提出한事實로보아 近間退官키로 될것이라는데 退官後同氏는 朝鮮銀行機構改革後 入行키로 大略確定되모양이라한다

九月中輸出 最高記錄

但入超累計增

今年에入하야從來의朝鮮對外貿易은累月輸入의膨脹이 顯著하야 貿易惡化一途이오 그形勢가憂慮되어잇스나 九月中의朝鮮對外貿易은如左히 輸出額에잇서 九月中合計六百七十五萬八千圓에 達하고 過去의最高記錄인 昭和九年十月의六百五十五萬八十圓을 凌駕하는飛躍을示하얏다 即如左하다

九月中對外貿易 (單位千圓)

	今年	前年比增減
輸出	七、七五八	六六四
輸入	六、七二五	五四
合計	一三、四八三	七一九
出超	一、〇三三	(前年入超)五七六

그리고 이輸出의 飛躍은 不振인米穀輸移出이 一萬一千石을增加하야 三十六萬四千圓增 雜品輸出增 四十七萬三千圓 增等이 原因되엇이라한다 그리고 累計貿易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九月	比前年九月增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米穀容重量調査

公定價格格差決定

【東京電話同盟】農林省에서는米穀의 容重量調査及 公定價格格差의 兩問題에 關하야 去二十八日 二十九日의兩日 米穀事務所長會議를 開하고 또 三十日及 一日의 二日間 道府縣米穀主任官會議를 召集하야 協議를 하야如左히 決定하엿다 米穀의 容重量調査는 現在容重量制를 取하고잇스므로 米穀의 重量制에의 轉向에 關한 基本調査인데 日本內地十七個所及 朝鮮三個所(元山、釜山、鎭南浦)台灣二個所(基隆、高雄)의 米穀事務所의 直轄調査(正租玄米及 道府縣(主로 穀物檢査所)正租玄米) 百以에 關한 委託調査의 二方法으로五個年計劃으로 品種等에따라詳細調査하기로되엿다 米穀價格差는 압서 管理法施行때문에 從來 格差가업는 正租에 對해서는 格差를 附할 必要에 切迫되어 새로三等級의 格差를 設定하기로決定하엿다

朝鮮信託도 貸付利下

朝鮮信託에서는 十月二日부터 不動産貸付利子를 年七分으로부터 三厘引下인 六分七厘로 引下하야 實施하엿다

金利低下로 土地熱再燃?

朝鮮의 土地投機熱은 米價의回復과 金利의 低下에따라 漸次 熾烈化하고잇는데 今回 다시東拓、殖銀과 朝信이 不動産金融金利를 各三厘引下한것과 換物傾向의 積極化等으로 다시 土地投資熱을 노코 地價는 [illegible]할것이라고 보고잇다 特히日本內地 資本家의 土地投資는 甚히 增加하게되엇다

預金利子課稅

朝鮮內銀行希望

銀行預金利子에 對한 課稅는 增稅案으로 日本內地는 引上되어 朝鮮도 當然 이에 追隨하야 增稅되게되엇스므로 銀行方面에서는 深甚한 考慮를 하고잇는데 現在 日本內地의 銀行預金에 對해서는 預金課稅百分之五、資本利子稅百分之二、計百分之七인데 一方朝鮮은 預金利子 課稅(資本利子稅無)百分之二만으로 日本內地보다 低率當이 되어잇다 이는朝鮮의 特殊事情이 考慮되어잇는것이므로 增稅에 際해도그引上率은 現在程度의 差는 特히考慮해주엇스면하는 希望이 잇다한다

金融統制의强化와 低金利政策徹底

—馬場藏相示唆—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今回斷行하랴고하는 稅制整理에 關聯하야 增稅가公債政策及 低金利政策에미치는 影響에 對하야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의 的이되여잇서 馬場藏相도 增稅案立案에當하야 此點調整에가장 苦心하고잇는 模樣이라는데 一日午後西下車中에서 增稅의 公債政策에미치는 影響에 對하야도 現在의權限이 許하는 範圍內에서 經濟的或은 强制的手段을 講究하야 公債의消化量을 圓滑히하고 또低金利政策에 對하야는 一般金利의 實質的低下 或은社債發行의 條件低下及 郵便低金利下도 考慮치안코는 아니된다고 言明하야 只今 即時 公債의 强制引受等의 强行手段은 講究치안는다하드라도 將來公債政策을 爲하야 金融統制强化及 低金利政策의 徹底를 暗示한것은 今後 動向을 示唆한것이라하야 자못 注目되고잇다

魚油九月分

合同油脂落札

魚油共販의 九月分定量及十月不定量은 入札한結果 雙方共히合同油脂에 落札되엇다

一、定量分(共給數量十一萬四千七百罐) 價格三圓六十六錢

一、不定量(十月) 價格三圓六十八錢

市中金價續高

佛國의 法貨切下로 倫敦金塊가 昂騰하는데따라 京城市中地金市勢도 今日은 倫敦金塊七磅五片二分一의報를 據하고 建値賣十三圓三十錢 買十三圓十錢으로 모다 續高이엇다

京江陸運解散

京春鐵道에讓渡

江原道及 京畿道關係의 路線貨物自動車業을 合同하야 一月一日부터 開業한京江陸運會社는九月三十日現在 解散하고 十月一日부터 事業全部를 京春鐵道會社에 讓渡하엿는데 京春鐵道에서는 京江陸運事業을 貨物自動[illegible]

經濟寸鐵

大阪米穀商統制組合에서 朝鮮米逐出을 斷行

○朝鮮米商이 大阪에 直賣所를 設置한 앙가품이라고

○米商들의 싸홈이라 問題視될것이업지만 이때문에 朝鮮米移出이 減少될가 念慮不無

○九月朝鮮의 對外貿易이 輸出額에 잇서서 最高記錄이지만 年初以來累計는 三千五百萬圓의 入超이니 떠들것업지……

經濟界消息

○新朝鮮호텔創立=野口遵氏의 創立準備中이던 株式會社 新朝鮮호텔(資本金十萬圓全額拂込)은 一日午前十時부터 創立總會를 開하고 昭和十三年春부터 營業을 開始키로 되엿는데 同호텔은 朝鮮호텔 六、七、八階에서 營業할것으로 和洋室數九十六室과 定員一千名의 大宴會場及 大小食堂을 가진것이라고

貿易前途重視

九月中旬에는 貿易이 八十四萬圓의 入超되엿고 貿易의 前途에 一抹의不安을 주엇스나 下旬은 出超二千五百萬圓으로 悲觀人氣는緩和된 모양이다 그러나 昨年同期의 四千六百萬圓에 比하면 輸出이 減少되엇고 또 金塊라崩壞로 對南洋貿易에 惡影響이 미칠것을 考慮한다면 반드시樂觀할것도 못된다

日產株는獨高

日產株는 八十二圓臺內外의高値로 連日버리고 잇는것은 法貨切下後 倫敦金塊高로 產金株의 買氣가 旺盛하야 日產、日鑛을 中心으로 產金株는 買熱되는 까닭에 一般市場이 保合에 閑散이면서 日產株만이 獨高現狀을 나타내고잇는것은 또한 金價의 將來와함께 注目을 要할바이다

株式 双方氣迷 保合

商況 (二日)

前場閑散 一日의 休日을 지난市場은 今朝에入하야 東新百三十七圓三十錢、日產八十二圓九十錢에 寄付하고 또大新七十一圓八十錢, 朝取八十九圓五十錢 朝新三十六圓四十錢에 賣買되엇스나 一般이 形勢觀望裡에傍觀하는狀態로 商況은 保合裡에 閑散이엇다

後場不變 後場은 東新百三十七圓七十錢 日產八十二圓四十錢 朝新三十六圓二十錢으로 保勢裡에 不變이엇다

市勢不透明! 東新이 百三十七圓臺內外에서 浮動하고잇는것은 무엇을 暗示함일가? 普通가트면 內外惡材料가 一時에오게되면 市勢는暴落할것인데 어찌하야 上伸도안코 低落도되지안코 彷徨하고잇는지 疑惑한바가업지안타 그러므로 强氣側은 이러한惡材料에도 低落치안는것을보면 그實勢를 可知니 惡材料가 업서진다면 東新百五十圓을 突破하엿을것이라고까지 揚言한다 事實 日中問題나 增稅問題나 法貨切下問題나 모도가 問題의性質이 一朝一夕에 解決될것이 아닌것만큼 그重壓에 伸悩狀態를 못하는것이나 그重壓에도 深押이 업슬것을보면 그러그底强하얏은것이라할것이다 그러므로 惡材料와 底强한 實勢가 對峙하야 結局 小幅保合商勢를 오래 繼續中이다 上放이나? 下押이냐? 人氣는 氣迷狀態에잇다

大株長短合併

取引員統一認可

【東京電話同盟】大阪株式取引所에서는 압서 淸算取引에 關하야 一般取引員과 短期取引員의 區別을 排하고 一般取引員에 統一하려는 所謂長短合併을 行하기로되어 定款變更及 現在의 短期取引員의 一般取引員免許에 關하야 認可를 申請中이던바 定款變更은 十月一日 認可되엇다 短期取引員五十七名의 一般取引員免許는 二日 各各 認可發許되엇다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르미 八六、〇〇 ▲日滿아루미新 三九、五〇 ▲朝鮮製鍊 三〇、五〇 ▲浦賀도크 六九、〇〇 ▲浦賀第二新十二圓五十錢拂込 六九、〇〇 ▲東京人絹 六〇、〇〇 ▲石川島新 三十七圓五十錢拂込 六八、〇〇 ▲라사工業 九十六、〇〇 ▲大同產業 四四、〇〇 ▲帝國產金 四五、五〇 (取引高一〇〇枚)

東京國債市況

課稅問題로 沈衰되든 國債는 投物一巡과 함께 漸次小康化하야 六分半九十錢 五分半三十錢 反發이오 이에이어서 佛貨도 二十錢이 올라 日本內地債도 月末整理의 引締도 緩和될것으로 보아 投資買가 散見되여 一般으로 回復傾向이 되엇다

▲甲五分利 一〇〇、六〇 ▲一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佛貨 一九五、五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六〇 ▲第三五分利 [illegible]

今日財界 (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三圓三十錢	一匁買 十三圓十錢
銀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今日止
朝新	—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
고무FAQ	[illegible]

利 一〇一、〇〇 ▲一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五五 ▲佛貨 一一九 ▲滿洲公債 一〇〇、五七 [illegible]

期米 增收說로 暴落

前場瓦落 昨後場阪地三十圓〇一錢止와 共히二十七圓八十八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〇三錢인二丁反高를 報하고 一方颱風의勢力이 漸次增大되어 九州、四國地方을 擁護할形勢라는 情報를 傳하자 買氣依然 猛烈하야 二十八圓丁인 十二丁突高로寄한後 阪地三節 二十九圓九十七錢으로 反落함을 알자 三節七圓八十一錢으로 奔落하더니 上場에 入하야는 阪地九十錢止의 低落을 示함뿐아니라 當地는 朝鮮米의 第一回豫想이 一千八百萬石이라된다는 說에 賣氣又一層旺盛하야 六十二錢의 最低로 暴落을 止하엿다

後場暴落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二錢인 二十錢暴落으로 始場한後 四節五十九錢으로 結局 四十九錢에 止하다

颱風은等閑視

市勢意外頭重

日本內地米作 第一回豫想이 岩手縣外 十二地方의 分이 一千七百二十四萬三千九百二十石으로 昨年보다 一百九萬餘石의 大增收로發表되엿다 一方으로는 東經百二十九度 北緯二十六度 卽那覇附近의 颱風의 中心은 速度七百二十粍 時速二十五키로로進行하야 北東으로 取하야 九州와 四國方面을 擁護하다는 仁川觀測所의 豫報가잇슴에도 日本內地의 市場은 意外等閑視하야 今朝阪地初付 三十圓〇三錢인 二丁高와 東京三十圓十七錢인 入丁高로 따라서 當地는 二十八圓十二丁高를 一般的保合으로 寄하고 颱風을 等閑視하야 東京은 十餘丁反落으로 當地는 二十餘丁의 瓦落을 告하야 至하엿다 勿論 日本內地의 米作이 一回豫想에 入하엿으로 如干의 颱風이 侵入한다할지라도 開花期와 如한 被害가 업슬것이라는 觀測되는 그러케 問題視하지안는모양이며 一方米作豫想發表의增加가 얼마를 買氣를 減殺한때문이 아닌가하다 [illegible] 三十縣一道三府의 豫想이 마치何如할지는몰으나 大略一次增收의 比例로된다면 六千四、五百萬石으로無難할것으로 一般은 觀測한다 그러라고하면 挽近各地市勢는 六千四、五百萬石을 目標로한行動이엇슴으로 別騰落이업시 結局保勢를 離脫하지못할것같다 그러나此는 減收完了하기외에는 確實한方針을 取하기 難하다 그런데 市中商談에 依하면 今回의米作豫想이 六千三百萬石인때에는 相當한 强材가될 모양이오 六千五百萬石以上을 훨신超過하는때는 相當한弱材로 보지안을수업다고 云云 果何如?

岩手縣外十二縣 一回豫想增收

昨日午後에 農林省으로부터 九月二十日現在調査에 依한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發表를 開始한바 岩手縣外十二地方의 分이 一千七百二十四萬三千九百二十石으로 昨年의實收에 比하야 二百八十七萬五千四十三石의 增收를 示하고 五個年平均收穫에 比하야 九萬四千九百七十石의 大增收를 示하엿다

感

㊑……오랜 保合은 漸次어데로 行方을 定할徵兆인데 上放이냐 下押이냐? 人氣는氣迷에傍觀▲그러나 惡材料가 다나와도 低落되지 안는것을보면 그實勢를 關하다고는 못하겟지▲그러타고惡材料의 重壓을물코 나갈條力이 잇는지는 알수업는지라 安心買도 不可能▲當分 形勢觀望而已?

㊎……那邊의 颱風은二百十日의 優勢力을 가지고北東으로 進行中이나 市勢에는何等의 影響이업는걸▲벌서黃熟期에 入하엿슴으로 如干颱風이 侵害한다 할지라도 그다지被害가 업슬것이라하야찰하리「모도리」賣의光景▲그래서 阪地는 十餘丁反落으로 當地는二十餘丁의瓦落▲前場第十節에는 朝鮮米作豫想이 一千八百萬石說이 俄然擡頭하야 中限의投物이 續出하엿스며 따라 先限도七十錢臺로 崩落하야 餘勢는軟弱?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昨夕發表된 一回收穫豫想高의 一回數字로 推算하건대 六萬五千六百萬石이되여 豊作은 確定的이나 市勢에 纖入되엿다 今朝는 颱風勢力이 回復되여 四國 九州近接를 擁護할 氣配가 濃厚하고 天候不良에 買氣刺戟되엇스나 그後 買氣도不參하야 軟派가賣를 거두고잇섯다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朝鮮側 神戶側 汐崎、地場軟派 中東來香

買方 地場强氣 朝鮮別派

各地正米

京城不變 一般으로 日本內地收穫豫想 發表待로 沈默을지켜 實買는一向不捗이다 ㊂三等二八、一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三一、〇〇

仁川伸惱 期米低나 現物不足으로 保合이엇다 新米도 實物이업서 實買는 伸惱狀態이다 ㊂三等二八、一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三一、三〇

釜山保合 必要에 切迫된小口買가 散見될뿐으로 實行不活潑과 期米軟勢에 一服하고 氣迷人氣가 濃厚하다 ㊂三等二九、五〇 四等二九、二〇 一等白米 三二、九六

大邱弱含 所持品은 賣急하는모양이나 環境不透明에 買氣不添하야 市況은 자못 閑散商狀을 繼續中이다 ㊂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 三二、一五

群山不動 收穫豫想 數字의 全鮮觀望裡에 積極的으로나오지안허 荷動은極히緩慢하다 그동안 新米는조금식 나오고잇다 ㊂三等二九、〇〇 四等二九、〇〇 新米㊂三等三〇、〇〇 一等白米 三二、六六

木浦閑況 期米軟調에 人氣不振이오 所持品의 賣込도 見送中이다 一回豫想發表가 不遠하니 ㊂三等二九、三〇 四等二九、二〇 一等白米 三二、〇〇

朝取期米取組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金融 (二日)

◆海外經濟 (一日)

倫敦金塊	七磅〇志五片二分一
純金一匁	十四圓五十一錢五厘
倫敦銀塊	一九片一六分一五
米棉 (現物一二仙六四 先物一二仙〇一)	八錢高
[illegible]	一八錢高
[illegible]	六九弗八分七
[illegible]	三八弗八分五
[illegible]	四四仙四分三

◆朝鮮銀行券 (三十日)

發行高	一五六、五四四、九四〇、六〇錢
正貨準備	九八、一七六、二八八、二六
保證準備	五八、三六八、六五二、三四

◆日本銀行券 (一日)

發行高	一、四〇五、二七〇萬圓 [illegible]
正貨準備	五三六、七一〇萬圓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單位千圓)

預金高	五九七、七六八	[illegible]
貸出高	五六一、五七六	[illegible]

枚數	六、七三五枚
金額	五、〇九六、五〇八、四七錢

◆東京金利

	最低	最高	標準
翌日物	.八五	.九〇	.九〇
無條件	.九〇	一.〇〇〇	.九五
普通物	.八五	.九五	.九〇

◆大阪金利

翌日物	一錢〇〇〇	一錢〇〇〇
無條件	一錢〇五〇	一錢〇五〇
普通物	一錢〇五〇	一錢一五〇
商業手形	一錢一〇〇	一錢六〇〇

◆對外爲替

米日爲替	二九弗七四仙
英米爲替	四弗九三仙八分五
以下朝鮮銀行賣	
對米 百圓에	二九弗一六分一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
對佛 一圓에	[illegible]
對上海 百弗에	一〇五圓
對關東	一〇〇圓

◆金買入價

日本銀行 一匁	三圓五〇錢
朝鮮銀行 一匁	三圓四八錢

◆東京市中金銀價

	金地金	銀地金
大口買價	一三、五〇	一八〇
同 賣價	一三、三五	一八五
小口買價	一三、〇〇	一七〇
同 賣價	一三、六〇	一九八

◆京城市中金銀價

	賣價	買價
純金	一三、三〇	一三、一〇
二十二金	[illegible]	[illegible]
二十金	[illegible]	[illegible]
十八金	[illegible]	[illegible]
白金	[illegible]	[illegible]
純銀	[illegible]	[illegible]

米穀 (二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鹽辻冲價 ◆驛前粕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二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二日)

◆朝取期米 ◆群山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正米標準値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二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大阪人絹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爲替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東益商店 株 金益證券株式會社 光皿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日生ビル

金.銀.白金 德 地金製錬及金銀打物代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